

도스토옙스키 초기 소설에 나타난 분신 형상: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과 「약한 마음」을 중심으로

정 재 환*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콕스의 분신 이론과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단편 소설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과 「약한 마음」을 중심으로 『분신』 이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분신 형상과 그 변화 과정에 관해 알아보았다.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에서는 유형적으로 큰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분신 관계임을 드러내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변화하였다. 「약한 마음」에서는 외적 분신이 등장하며 분신의 유형에 변화가 생겼고, 분신에 해당하는 인물이 말로써 분신임을 드러내는, 4대 장편에 등장하는 분신 기법의 단초가 발견되었다. 한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을 찾는 작가였고,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는 그것을 분신이라는 기법을 통해 표현해 내었다.

주제어: 도스토옙스키, 분신,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 「약한 마음」

I. 도스토옙스키와 ‘분신’

타 국가 문학과는 달리 러시아 문학에서 분신 기법이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고골(Н. В. Гоголь), 도스토옙스키(Ф. М. Достоевский), 벨리(А. Белый) 등 러시아 문학사의 주축을 이루는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서 분신 기법을 즐겨 사용하면서, 비교적 특별한 장치가 되었다. 조혜경은 “분신의 출현은 러시아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 참칭자의 출현과 연관시킬 수

*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석사과정, junkant@snu.ac.kr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러시아적인 문화 현상의 하나¹⁾라고 지적하며 분신 기법을 러시아 문학만의 특별함이라고 평가한다.

그중에서도 분신 기법을 가장 각별하게 취급했던 작가는 단연 도스토옙스키이다. 도스토옙스키는 4대 장편이라고 평가받는 『죄와 벌』(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1866), 『백치』(Идиот, 1868), 『악령』(Бесы, 1872),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1880) 모두에서 분신 기법을 사용할 정도로 ‘분신’에 많은 흥미를 보였다.

분신을 향한 그의 사랑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가난한 사람들』(Бедные люди, 1846)로 문단의 극찬과 함께 등단한 그는 같은 해 후기작 『분신』(Двойник, 1846)을 선보인다. 발표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에 굉장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골라드킨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10배는 뛰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은 혼』(Мёртвые души, 1842) 이후에 그와 비슷한 것은 러시아에 없었고, 천재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함께 많은 이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어요! 반드시, 골라드킨은 나를 성공하게 해줬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형도 골라드킨을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심지어 『죽은 혼』보다도 좋아할 겁니다.²⁾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작품은 엄청난 혹평을 받게 된다. 상당한 충격을 받은 도스토옙스키는 그 와중에도 『분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패의 원인은 형식에 있을 뿐이며 소설에 내재된 관념은 심오한 것이라고, 그리고 주인공 골라드킨은 자기가 발견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전형이라고 자만하였다”³⁾

결국 그는 상술한 4대 장편에서 분신 모티프를 플롯의 전개, 철학과 관념의 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하며 ‘분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1) 조혜경, 「문화적 맥락에서 본 ‘분신’의 의미 -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0권 (2005), 141-142쪽.

2) Достоевский Ф.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ом XXVIII (Л.: Наука, 1985), с. 118.

3) 석영중, 「위대한 소설의 전주곡, 『분신』 (열린책들, 2010), 246쪽. 재인용.

그렇다면 도스토옙스키는 무엇을 위해 분신 기법을 사용했던 것인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작가였다. 그에게 인간이란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존재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 작품 속 인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를 겪지 않는 완결된 상태로 등장한다.⁴⁾ 그들의 영혼은 변화가 없기에 인간의 이중성,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신적 분열을 묘사하기 위해 작가는 분신이라는 장치를 선택한다.⁵⁾ 주인공과 그의 분신은 분열되어 있지만 공동체적 통합을 유지하면서 서로 투쟁한다.⁶⁾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허상과 본질이 드러나고⁷⁾, 인간의 이중성과 불안정성이 표현되면서 인간 실존의 구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단순히 ‘존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⁸⁾ 이는 바흐친이 언급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핵심적인 특성인 다성악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심 인물의 개별적 측면들이 분열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⁹⁾ “영혼의 분열은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발견으로서, 그는 그 속에서 인간 정신의 심연을 제시”¹⁰⁾했고, “분신이라는 주제는 그의 작품 속에서 여러 번 그리고 몇 가지의 변형으로 반복되고 있다”¹¹⁾ 환언하자면, 도스토옙스키는 ‘하나의 관념’으로 등장하는 작품 속 인물들의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측면을 묘사하기 위해 분신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모티프를 다룰 때, 대부분 『분신』의 골라드킨 이

-
- 4) 나보코프(이혜승 옮김), 『나보코프의 러시아 문학 강의』 (을유문화사, 2022), p. 214 참조.
- 5) 김연경,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다시 읽기: 분열, 환상, 소설」, 『노어노문학』 제30권 제1호 (2018), 122쪽 참조.
- 6) 모츨스키(김현택 옮김), 『도스토옙스키 1: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 (책세상, 2000), p. 75 참조.
- 7) 홍대화, 『도스토옙스키 읽기의 즐거움: 죄와 벌·백치·악령·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파주: 살림, 2005), 76쪽 참조.
- 8) 카(권영빈, 김병익 옮김), 『도스토옙스키』 (기린원, 1989), 45쪽. 치첵스키(김규중 옮김),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 분신의 주제」, 『도스토옙스키 연구』 (열린책들, 1987), p. 191-200 참조.
- 9) 바흐친(김근식 옮김), 『도스토옙스키 詩學』 (정음사, 1988), p. 11. 박혜경,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 나타난 分身테마 분석」, 『슬라브학보』 제6권 (1991), 35-36쪽 참조.
- 10) 권철근,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 라스콜리니코프의 두 얼굴」, 『슬라브연구』 제25권 2호 (2009), 216쪽.
- 11) 치첵스키(김규중 옮김), 앞의 논문, 1987, p. 183.

후에 곧바로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언급한다.¹²⁾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 분신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애착을 감안한다면 그 간극은 매우 크다. 4대 장편뿐 아니라 유형 이후에 『분신』의 저작본을 발표했던 것을 본다면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분신 모티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그가 언급했던 ‘잘못된 형식’을 꾸준히 교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Роман в девяти письмах, 1847)과 「약한 마음」(Слабое сердце, 1848) 분신 기법의 발전과 변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품은 분신의 모티프가 잘 드러난 작품들 중에서 『분신』과 시기적으로 가장 맞닿아 있는 작품으로, 두 작품을 통해 분신 기법의 단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II. 콕스의 분신 이론과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작품들의 분석에 앞서, 어떠한 특정 이론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적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교가 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 연구가 콕스(G. Cox)는 자신의 저서에서 도스토옙스키 작품 속 분신을 유형화하는데, 이 이론이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그는 이전까지 분신이 도스토옙스키 작품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에 복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모호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분신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한다.¹³⁾

도스토옙스키는 인물 내면의 양면성, 모순, 불안정성 등을 영혼의 분열로 나타냈고, 그 분열이 의인화된 ‘분신’의 형태로 작품 속에 등장시켰다.

12) 혹은 유형 이후의 작품을 언급한다.

권철근, 앞의 논문, 2009, 217쪽. 김연경, 앞의 논문, 2018, 109쪽. 박혜경, 앞의 논문, 1991, 36쪽. 정지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분신』 연구 주인공 정식착란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3호 (2020), 2쪽. 홍대화, 「도스토옙스키의 『분신』의 서사구조: 환영의 미로」, 『노어노문학』 제27권 제1호 (2015), 184쪽. 치첵스키, 앞의 논문, 1987, p. 191.

13) Cox G. *Tyrant and Victim in Dostoevsky Columbus* (Ohio: Slavica Publishers, 1983), pp. 45-64 참조.

그러나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분열과 분신마다 차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칭하여 분신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모호함이 발생한다. 이에 콕스는 도스토옙스키 소설들 속 중심 인물의 분신들을 유형화시키고 그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첫 번째로 도스토옙스키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분열을 내적(internal) 분열과 외적(external)로 구분한다. 전자는 인물 내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내적 분열은 의인화되어 분신으로 등장한다. 후자는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분신과 마주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콕스는 두 번째로 중심 인물의 분신의 형태를 내적 분신, 외적 분신으로 나눈다. 전자는 상술한 내적 분열이 의인화된 것으로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분신』의 작은 골라드킨이 있다. 후자는 평행(parallel)적 분신과 대조(contrastive)적 분신으로 세분화된다. 평행적 분신은 중심 인물의 특정 측면을 소유한 인물이고, 대조적 분신은 결핍된 측면을 가진 인물이다.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평행적 분신의 예가 될 것이고, 대조적 분신으로는 『백치』의 로고진이 그럴 것이다.

콕스의 이론에 따르자면, 4대 장편에 중심 인물의 분신으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외적 분신에 속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후기로 갈수록 작가적 성숙함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할 때,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형상은 내적 분신에서 외적 분신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과 「약한 마음」에 나타난 분신 형상을 분석하면서, 내적 분신에서 외적 분신으로의 변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II.1.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 : 분신 기법의 변화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은 『분신』을 집필하던 당시 단 하루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작품과 관련해서는 “제2의 골라드킨”, “도스토옙스키의 익살스러움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간단한 평가만 있을 뿐, 깊은 차원의 연구를 찾기는 힘들다.¹⁴⁾ 그러나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은

중심 인물과 그의 분신에 해당하는 인물이 분신 관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도스토옙스키가 처음 적용한 작품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분신』에서 분신을 노골적이고 단순하게 드러낸다. 분열하는 순간을 직접 언급하고, 똑같은 외관과 ‘큰’과 ‘작은’만 붙일 뿐 이름마저 똑같이 하여 분신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4대 장편에서는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말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반과 스메르자코프의 혈연관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은 일종의 캐릭터넘과 시간을 통해 분신 관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의 맹아가 되는 작품이다.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의 주인공은 이반 페트로비치와 표트르 이바노비치라는 아주 가까운 사이의 두 인물이다. 표트르와 이반은 표트르의 지인인 예브게니 니콜라이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반은 표트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다. 표트르가 사실 이반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 둘은 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주고받는데, 기묘하게도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도시를 향해 떠날 것을 암시하면서 소설은 마무리된다.

캐릭터넘 기법에 숙달된 도스토옙스키는 인물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¹⁴⁾ 해당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라스콜니코프처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과 부칭이 대칭이라는 점에서 그 둘이 거울과 같은 분신 관계임을 암시한다. 나아가, 이반과 표트르라는 당대 가장 흔했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작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흔한 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도 둘이 분신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반과 표트르는 각자 아내가 있는데 아내들은 모두 아이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 있다. 마지막 편지에서 두 아내는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륜의 상대가 예브게니 니콜라이치라는 동일한 인물이다. 또한 이반이 표트르의 집에 놓고 간 덧신을 표트르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표트르의 아내

14)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참고 바람. 모츨스키(김현택 번역), 앞의 책, 2000, p. 66. Kennosuke N. 『ドストエフスキー人物事典』(朝日新聞社, 1990), 22-23쪽.

15) 조주관, 「러시아 작가들의 ‘캐릭터넘’ 기법」, 『러시아소비에트문학』 9권 (1998), 159쪽.

는 이반의 아내에게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빌린다.¹⁶⁾ 둘은 격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심비르스크로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둘에게 평행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은 둘이 분신 관계에 있음을 확신하게끔 한다.

위와 더불어 이반과 표트르는 서로를 찾기 위해 각자의 집에 며칠 내내, 매번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편지만 주고받는다. 또한 작품에서는 10일 동안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만이 존재하지만, 첫 편지를 보면 그보다 3일 전부터 사건이 진행되어 총 13일 동안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골의 『코』(Нос, 1836)에서도 사용된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¹⁷⁾의 모티프인데, 이로 인해 둘의 존재에 환상성이 더해진다. 같은 도시에 있지만 만남이 부재한 점에서 실제 물리적 형상의 존재가 의심되는 환상적인 분신, 콕스의 이론에 따르면 ‘내적 분신’이라고 유형화할 수 있다. 『분신』과 비교했을 때, 분신의 유형이 변화하였거나 어떠한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인물들이 분신 관계임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도스토옙스키의 새로운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II.2. 「약한 마음」 : 외적 분신의 첫 등장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과는 달리, 「약한 마음」은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작품이다. 그러나 바샤 슴코프를 행복과 자유에 부담을 갖는 ‘작은 인간’의 파멸이라는 측면에서 페테르부르크 텍스트의 일종으로 이해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¹⁸⁾, 분신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볼

16) 박혜경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언급하면서 그 예시로 『돈키호테』를 든다. 이어서 욕망의 삼각형 구조의 최고 경지에 있는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이며, 그의 소설에서는 욕망의 주체가 분신으로 격화된다고 지적한다. 분신과 관련된 물건을 통해서도 둘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박혜경, 앞의 논문, 1991, 38-40쪽 참조.

17)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은 13일의 차이가 있다. 『코』에서도 사건이 13일 동안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사건이 꿈(Сон)임을 암시한다.

18)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모쿨스키(김현택 번역), 앞의 책, 2000, p. 120-125. 조혜경, 「「약한 마음」에 나타난 도덕감의 문제 연구-주인공의 운명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33권 제1호 (2021), 255-276쪽. 허선화, 「도스토옙스키와 체홉: 병리적 불안을 중심으

수 없었다. 「약한 마음」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최초로 외적 분신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도스토옙스키 작품 속 분신 형상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약한 마음」은 바샤 슴코프의 파멸을 다룬다. 바샤는 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직장 상사는 바샤를 위해 서류 정서 업무를 요청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바샤는 보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바샤는 업무 이후의 보수, 곧 있을 결혼 등이 가져다줄 행복감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결국 그는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병자가 되고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된다.

작품의 주요 인물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네페제비치와 바샤 슴코프이다. 둘은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이다. 그러나 작가는 두 인물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표기한다. 한 명은 이름, 부칭, 성을 모두 표기한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이름과 성, 그것도 이름은 애칭으로 표기한다. 앞 장에서 지적했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에 그 특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둘의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은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작품의 화자도 표기 방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작가는 물론 왜 한 주인공의 이름은 제대로, 다른 한 주인공의 이름은 애칭으로 적었는지 독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 방법이 격식에서 벗어나며 어느 정도 친근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등장 인물들의 지위와 나이, 신분, 직업, 그리고 심지어는 등장 인물들의 성격까지도 묘사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작가가 많기 때문에, 이 소설의 작가는 그들과 동류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즉, 아마도 소위 자존심 때문에) 곧바로 사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¹⁹⁾

그러나 그 이유는 두 인물을 자세히 보면 쉽게 유추가 된다. 작품에서

로」, 『노어노문학』 제34권 제3호 (2022), 177-214쪽. Strelsky K. "Dostoevsky's Early Tale, "A Faint Heart." ", The Russian Review 30(2) (1971), p. 43-52. Kennosuke N. 앞의 책, 1990, 43-52쪽.

19) 도스토옙스키(이항재 옮김), 『백야 외』 (열린책들, 2010), p. 79.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 표기함.

바샤 슴코프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인물이다. 실제로 직업, 외모, 결말 등에서 고골의 「외투」(Шинель, 1842)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연상시키는 ‘작은 인간’의 전형이다. 그에 반해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네페제비치는 성숙한 인물로 등장한다. 즉, 작가는 인물의 성숙도에 따라 이름의 표기 방식을 달리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둘의 관계이다. 바샤와 아르카디는 한 집에서 5년 동안 같이 지내온 절친한 사이다. 그렇다면, 둘은 동등한 수준—바샤가 아르카디처럼 성숙하거나, 아르카디가 바샤처럼 ‘작은 인간’이거나—인 것이 타당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지점에서 둘의 실질적인 관계는 친구라기 보다는 아르카디가 바샤를 품고 있는, 종속의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을 분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르카디 영혼의 일부가 의인화되어 바샤라는 인물로 구현된 것이다.

작품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둘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다. 바샤는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아르카디에게 알리려고 한다. 아르카디가 바샤를 껴안으며 재촉하는데 바샤는 자신이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가치를 잃게 되는 애기”(81)라면서 놓아달라고 말한다. 결혼은 곧 독립을 의미하는데, 아르카디에게 묶여있는 채로 독립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은 바샤가 아르카디에게 종속된 그의 일부임을 뜻한다. 바샤는 결혼 후에도 아르카디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85)고 말하는 대목, 바샤의 결혼 상대인 리자의 집에 가는 장면에서 “가느다 마느다의 결정이 마치 네페제비치에게 달린 듯”(91) 불안해하는 바샤의 모습에서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바샤의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아르카디와 바샤가 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장면부터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르카디는 바샤에게 “이제 내게 있어 너와 그녀는 분리될 수 없지. 다만 내게 ‘너’가 하나 대신 둘이 되는 거야……”(105)라고 말한다. 바샤는 기존에 아르카디 내면에 존재했던 사랑과 ‘작은 인간’의 영혼이 분신의 형상으로 나타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르카디가 이 말을 한 순간부터 사랑이라는 요소는 리자가 소유하게 되고²⁰⁾, 바샤에게는 ‘작은 인간’의 측면만이 남게 되는 것

20) 이렇게 본다면, 리자도 아르카디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콕스는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뿐만 아니라 소냐 또한 라스콜니코프의 분신이라고 지적했다. Cox G. op.cit. p. 59.

이다.

바샤는 아르카디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즉 순수하게 ‘작은 인간’이 된 이후부터 정서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불안 증세를 보인다. 아르카디는 “바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122) 위로를 해주는데, 이어지는 바샤의 질문에서 4대 장편에서도 나타나는 분신 관계임을 암시하는 말이 등장한다.

“... 들어 봐.....전부터 네게 물어보고 싶었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알고 있지?” 눈물이 바샤의 눈에서 아르카디의 손으로 떨어졌다. “바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안다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을 텐데!” (125-126)

이러한 말은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말과 유사하다.

“뭐라고요? 댁이 그렇게 생각했던 말ियो?”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놀라면서 물었다. “정말이요? 거봐요, 내가 말하지 않았소, 우리에겐 어딘가 공통점이 있다고, 안 그렇소?”²¹⁾

바샤는 그 뒤로 정신병이 더욱 심해지는 와중에도 아르카디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바샤는 “잉크도 묻히지 않은 펜으로 정서를 했다” (135) 결국 바샤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샤가 사라진 후의 아르카디가 “무언가 새로운 존재로 성장한 것 같았다” (145)고 느끼는 장면이다. 아르카디에게 있어서 바샤의 사라짐은 ‘작은 인간’의 면모가 아르카디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성장한 것이다.

『분신』,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과 달리 「약한 마음」의 바샤 숨코프는 존재가 명확한 구체적 외부인이기 때문에 외적 분신에 해당한다. 나아가, 바샤 숨코프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네페제비치의 특정 측면—‘작은 인간’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 분신 중에서도 평행적 분신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외적 분신이 처

21) 도스토옙스키(김희숙 옮김), 『죄와 벌 (하)』 (을유문화사, 2012), p. 20.

음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루는 주제는 앞선 두 작품과 비슷한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환멸이고, 후기 작품에 등장하는 분신들이 주인공과 대등하거나 독립적인 존재인 것과는 달리 내적 분신과 유사하게 주인공에게 종속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III. 결론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모티프에 있어서 『분신』과 4대 장편의 간극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고에서는 『분신』 이후 집필된 두 단편 소설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 「약한 마음」 속 분신 형상의 분석을 시도했다.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은 『분신』과 비교했을 때, 작품이 쓰여진 시기와 다루는 주제 모두 비슷하다. 따라서 주인공과 분신인 인물의 관계도 내적 분신의 유형으로 현저한 발전이나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분신』에서는 분열의 순간, 둘의 이름 등 분신 관계임이 드러나는 장면이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해당 작품에서는 분신 관계를 이름, 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차이가 있었다.

「약한 마음」에서는 분신의 유형이 내적 분신에서 외적 분신으로 변화했다는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후기 작품에서도 등장하는 분신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이 분신임을 암시하는 말들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약한 마음」의 분신은 후기 작품의 분신처럼 거대하고 심오한 관념을 지닌 인물이 아닌, 아직까지 비교적 단순하고 평면적인 인물이다.

콕스의 이론을 다룬 앞선 장에서 필자는 내적 분신에서 외적 분신으로의 변화를 ‘발전’이라고 말했다. 두 유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분열과 분신의 순서에 있다. 내적 분신의 경우 인물 내면에서 내적 ‘분열’이 발생하고, 이후에 그 분열이 의인화되어 분신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외적 분신의 경우 ‘분신’이 먼저 등장한 이후, 둘의 갈등에서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두 유형끼리만 비교한다면 좋고 나쁨이 없지만, 도스토옙스키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에 한해서는 내적 분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외적 분열로 이동한 것을 발전이라고 표현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이중성을 누구보다도 잘 포착하는 작가이다. 그가 바라본 인간의 내면에는 이성과 감성, 선과 악, 자유와 법이 상충하고 욕망이 존재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분신의 형태로 그려내었다.²²⁾ 즉, 그에게 분신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형식’이었던 것이다. 『분신』의 실패에서 형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후기 작품에서 꾸준히 사용했다. 인간의 양면성을 묘사하기에 최적의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분석한 두 작품은 분신 기법을 연마하는 ‘습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외에도 그의 분신 형상의 변화와 발전 과정은 현재까지 미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들 곳곳에 숨어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분신의 형상 연구를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22) 권철근, 앞의 논문, 2009, 235쪽.

참고문헌

1. 권철근,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 라스콜리니코프의 두 얼굴」, 『슬라브연구』 제25권 2호, 2009.
2. 김연경,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다시 읽기: 분열, 환상, 소설」, 『노어노문학』 제30권 제1호, 2018.
3. 나보코프(이혜승 옮김), 『나보코프의 러시아 문학 강의』, 을유문화사, 2022.
4. 도스토옙스키(석영중 옮김), 『분신』, 열린책들, 2010.
5. _____(이항재 옮김), 『뻬쩨르부르크 연대기 외』, 열린책들, 2010.
6. _____ 『백야 외』, 열린책들, 2010.
7. _____(김희숙 옮김), 『죄와 벌 (하)』, 을유문화사, 2012.
8. 모츨스키(김현택 옮김), 『도스토옙스키 1: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 책세상, 2000.
9. 바흐친(김근식 옮김), 『도스토옙스키 詩學』, 정음사, 1988.
10. 카(권영빈, 김병익 옮김), 『도스토옙스키』, 기린원, 1989.
11. 박혜경,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 나타난 分身테마 분석」, 『슬라브학보』 제6권, 1991.
12. 석영중, 「위대한 소설의 전주곡」(역자해설), 『분신』, 열린책들, 2010.
13. 정지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분신』 연구 주인공 정식착란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3호, 2020.
14. 조주관, 「러시아 작가들의 ‘캐릭터넘’ 기법」, 『러시아소비에트문학』 9권, 1998.
15. 조주관·임정택·하명해, 「문학의 구심력과 원심력: 러시아 문학과 독일 문학의 상호텍스트적 변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12권, 2002.
16. 조혜경, 「문화적 맥락에서 본 ‘분신’의 의미 -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0권, 2005.

17. 조혜경, 「「약한 마음」에 나타난 도덕감의 문제 연구-주인공의 운명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33권 제1호, 2021.
18. 치츨스키(김규중 옮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서 분신의 주제」, 『도스토예프스키 研究』: 열린 책들, 1987.
19. 허선화, 「도스토예프스키와 체홉: 병리적 불안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34권 제3호, 2022.
20. 홍대화, 『도스토예프스키 읽기의 즐거움: 죄와 벌·백치·악령·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파주: 살림, 2005.
21. 홍대화, 「도스토예프스키의 『분신』의 서사구조: 환영의 미로」, 『노어노문학』 제27권 제1호, 2015.
22.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ом XXVIII*, Л.: Наука, 1985.
23. G. Cox, *Tyrant and Victim in Dostoevsky Columbus*, Ohio: Slavica Publishers, 1983.
24. K. Strelsky, “Dostoevsky’ s Early Tale, “A Faint Heart.” ”, *The Russian Review* 30(2), 1971.
25. N. Kennoske, 『ドストエフスキー人物事典』, 朝日新聞社, 1990.

Abstract

**The Double's Image in Dostoevsky's Early Novels:
Focusing on *Novel in Nine Letters* and *A Weak Heart***

Jung, Jae H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short novel “Novel in Nine Letters” and “A Weak Heart” by the Russian writer Fyodor Dostoevsky are analyzed, with a focus on Cox’s ‘double theory’ and differences with “The Double”. Cox separated Dostoevsky’s doubling into ‘internal doubling’ and ‘external doubling’. He also separated double into ‘internal double’ and ‘external double’. In “Novel in Nine Letters”, there were no major changes of type of double, but the method which reveals the relationship of hero and his double is changed indirectly, for example naming, equal event. In “Weak Heart”, The type of double is changed to external double(“The double” and “Novel in Nine Letters” are internal double). moreover, like double in Dostoevsky’s four major novels, the technique that hero’s double reveals himself through his words is discovered. Dostoevsky was a writer who sought answers to human existence and sought to express the duality within human beings. He expressed it through the technique of double.

Key words: Dostoevsky, Cox, Double, “Novel in Nine Letters”, “A Weak Heart”

문학 작품에서 일상의 문제(인물과 행위): 20세기 말-21세기 초 한국 단편 작품을 중심으로

최인나*

국문 초록

문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문학 작품에서 일상의 영역은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이것은 인물의 모든 형태의 존재와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삶일 수도 있고, 또는 일상적인 상황들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감정 표현들일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문학 작품 세계에서 ‘일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후 20세기 말 21세기 초 한국의 현대 작가들의 단편소설들을 토대로 일상의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려 한다.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단편 작가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은 사실상 동년배들이다. 그러나 그들 각각은 문학이라는 예술 공간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하도록 만드는 자신만의 인생 경험을 가지며, 어떤 때는 소설이 아니라 사건 현장의 다큐멘터리 리포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등장인물들을 그린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일상의 문제를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제어 : 일상, 현대 한국 단편 소설, 김애란, 김연수, 김영하, 김중혁, 박민규

I.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문학작품 세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조교수, i.tsoy@spbu.ru

계에서 ‘일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러시아의 문학비평 분야에서 미학 현상으로서의 일상에 대한 이론적 인식은 아직 형성 단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20세기 말 21세기 초 한국의 현대 작가들의 단편소설들을 토대로 일상의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려 한다.

II.

우선 사회학적 관점에서 일상은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회학에서 일상은 인간 활동의 ‘자연스럽고’ 자명한 조건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삶 전반을 의미한다.¹⁾ 일상생활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인데, 당시 사회학의 새로운 경향인 일상생활의 사회학(everyday-life sociology)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일상생활과 현실의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던 일상생활의 사회학은 20세기 말 무렵에는 인문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일상을 연구하는 민족지학자들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역사학자나 사회학자, 인문학자들은 사건들로 가득하며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간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우연적인 현상들에 주목한다. 그들은 바로 사소한 일상성 속에서 ‘시대 정신’의 상수를 발견한다.²⁾ 그리하여 일상성의 지표들과 세태의 특징들은 대중문학 시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중문학은 매우 사회적이며 실제와 유사하고, 시사성은 플롯의 허구성과 공존한다. “일상 생활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다루지 않은 간극들과 마주하게 하고, 비영웅적인 일상적 생존, 삶의 자질구레함을 탐구하도록 한다.”³⁾ ‘일상성’의 영어식 표현인 «everyday life»의 의미는 템포와 반복성, 사건이 있다가도 없고, 순환되면서도 직선적

1)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URL: <https://iphlib.ru/library/collection/newphilenc/document/HASH6743a8d87bb13ae8cfee67>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2) Черняк Мар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Поэтика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й масс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URL: <https://lit.wikireading.ru/4547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3) Бойм С. Общие места. Мифология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Москва, 2022. С. 15.

이며 분절되기도 하고, 연속적이기도 하며 지속과 멈춤이 혼재되어 있는 매일 매일의 삶을 더 직접적으로 지칭한다. 이 모든 것은 일상생활이 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게 한다. 육체나 정신 혹은 영적인 것에만 매몰되면 성격의 다면성을 놓치게 된다.⁴⁾ 일상성은 살아 볼 수밖에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일상은 파국적이지 않다. 그것은 죽음이나 불행, 종말에 관한 역사적인 서술과 대립된다.⁵⁾

일상성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코드체계로서 이를 통해 의미가 생산되고 대상이 형성되며 변형된다. 일상생활은 민족지학적이거나 지역적, 혹은 세대적 자료로 환원될 수 없다.⁶⁾ 움베르토 에코는 일상생활이라는 기호체계 안에서 실존과 일상이 결합되며, 바로 여기에 가족과 집단, 민족, 국가의 문화적 코드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⁷⁾ 유리 로트만은 일상성의 현상이 단순히 노동이나 여가의 세대 묘사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문학 연구계의 선구적 연구자 중 한 명이었다.⁸⁾

문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따라서 예술작품에서 일상의 영역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는 개인의 공적 생활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그의 적응 방식이나 양상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인물의 모든 형태의 존재와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삶일 수도 있고, 또는 일상적인 상황들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감정 표현들일 수도 있다. 이때 사건이나 사건 없음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집단적인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일상,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습

4) Струкова Т.Г.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и литература. URL: <https://culturolog.ru/content/view/3424/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5) Бойм С. Общие места. Мифология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Москва, 2022. С. 42.

6) Струкова Т.Г.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и литература. URL: <https://culturolog.ru/content/view/3424/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7) Эко У. Отсутствующая структура. Введение в семиологию. СПб, «Петрополис», 1998. URL: <https://culturolog.ru/content/view/3424/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8) Лотман Ю. М. Беседы 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Быт и традиции русского дворянства (XVIII - начало XIX века). СПб, Искусство, 1994. URL: <https://culturolog.ru/content/view/3424/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관들, 인식과 행위의 스테레오타입, 문화적 기준점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인자들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시대 정신, 공통된 시대상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목격자이자 ‘기록자’들이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문학의 전통은 역사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 특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들로 가득했던 20세기가 현재 한국의 외형을 만들었다면, 20세기 말 21세기 초 한국사회는 전 세계와 함께 정보화 디지털 발전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념적 주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문학에서 관찰된다. 이른바 탈 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메타담론, 즉 거대서사(큰 서사)의 시대에서 미시담론의 시대로 이행하면서 현대 작가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대체되고, 개별 인간의 감정과 감각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많은 작품에서 주인공은 대도시를 배경으로 일상을 살아간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고 편의점의 익명성을 선호한다. 그들은 자연보다는 인공구조물 곁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실제 생활보다는 인터넷에서 맺는 우연한 관계를 선호한다... 이 인공적 세계의 대부분은 소위 대중문화라 불리는 문화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공들의 추억은 인기 가수의 노래나 유행하는 의류 브랜드, 상업 영화들과 연결된다.”⁹⁾

20세기 말 21세기초 문학 창작의 전성기를 맞은 대표적인 한국 작가들은 자신들의 소설에서 대도시에서 사는 인간의 삶을 묘사한다: “평일이 삶의 흐름을 구성하고 인간은 그 느릿한 움직임에 편입된다.”¹⁰⁾ 이러한 테마는 한국에서 단편 작가로 유명한 박민규(1968년생)나 김영하(1968년생), 김연수(1970년생), 김중혁(1971년생), 김애란 (1980년생) 등의 흥미를 끈다. 이 작가들은 장편소설도 쓰고 있지만, 주인공들이 도시 생활의 대표자들이며 다양한 일상의 상황들에 부딪치는 단편소설들에서 일상성은 특히 두드러진

9) Kang Yu-jung. Popular Culture Connects with Literature: Kim Young-ha, Park Min-gyu, Kim Kyung-uk, Kim Junhyuk. KOREAN LITERATURE NOW. URL: <https://kln.or.kr/lines/essaysView.do?bbsIdx=156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10) Кузнецова Т.Л. Коми рассказ рубежа XX-XXI веков: особенно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URL: <https://cyberleninka.ru/article/n/коми-рассказ-рубежа-xx-xxi-vekov-osobennosti-hudozhestvennogo-razvitiya/viewe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다. 일상성을 그린 예로서 박민규의 <카스테라> (2005), 김영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2010), 김연수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2009), 김중혁의 <악기들의 도서관>(2008),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2017)과 같은 단편소설집들을 살펴보려 한다. 단편소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흐름, 소소한 순간들과 현실에 주목한다. 일상에 대한 과장된 관심과 탐닉은 단편을 자연주의에 가깝게 한다.¹¹⁾

대도시에서 사는 인간의 테마는 20세기 작가들의 소설에서도 그려졌었지만, 당시에는 거대하고 복잡한 서사에 중점을 둔 채 1910-1945년 일제강점기라든지, 1950-1953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산업화와 그에 따른 계급분화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인생 행로를 풀어 나갔던 반면, 21세기 초 작가들은 소비와 인터넷 전성기 시대에 존재를 영위하며 비교적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을 그린다. 민족의 집단적인 역사는 개인의 사적 이야기로 대체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문학의 역사적 벡터가 사회문화적인 벡터로 전환되었다. 많은 현대 작가들이 주인공의 내적 심리와 사유, 일상에 대한 성찰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다. 일자리나 주거지 찾기, 가정이나 직장 내 갈등과 같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문제들을 가진 동시대인들에 작가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런 단편들에서 중심 인물들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영웅들’이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반복되는 삶을 배경으로 자기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대 한국 소설에서는 인물과 시간, 공간의 탈영웅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김연수의 <설계자들>, 정유정의 <종의 기원>이나 <7년의 밤>에서와 같은 몇몇 장르적 작품들에서는 서사의 중심 인물이 살인자 같은 안티히어로인 경우도 있다.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단편 작가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은 사실상 동년배들이다. 그러나 그들 각각은 문학이라는 예술 공간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하도록 만드는 자신만의 인생 경험을 가지며, 어떤 때는 소설이 아니라 사건 현장의 다큐멘터리 르포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11) Кузнецова Т.Л. Коми рассказ рубежа XX-XXI веков: особенно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URL: <https://cyberleninka.ru/article/n/коми-рассказ-рубежа-хх-ххи-веков-особенности-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развития/viewe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정도로 사실적인 등장인물들을 그린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일상의 문제를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영하 작가의 문체적 특징은 대화의 풍부함과 사건의 순차적인 전개라 할 수 있다. 박민규 작가의 서사가 파편적이며,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의해 흩어져 있다면, 김영하 작품에서 이야기는 대부분 순차적이며 직선적으로 전개된다. 그의 몇몇 단편들은 주인공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에피소드, 작은 스케치라고 감히 명명할 수 있다. 김영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라는 단편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 소설 속 인물들은 나 자신보다도 더 실제적이다. 내 마음에 조용히 깃든 이 내밀한 유쾌가 문장이라는 매개를 통해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희망해본다”(김영하 2010년 7월). 실제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학생들, 서비스업계 종사자들, 부부들, 연인들, 경찰이나 우연한 행인들이다. <Korean Literature Now>라는 잡지에 실린 작품평을 보자. “주인공들은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그들의 우아한 삶의 이미지는 단지 기이한 비밀과 절망의 포장지일 뿐이다. 김영하 작가가 가볍지만 통찰력 있는 문체로 묘사하는 도시인들은 걱정 없고 우아한 도시인이라는 가면 아래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감추고 있다.”¹²⁾ 단편집의 첫번째 작품 <로봇>에서 여주인공이 자칭 로봇인 젊은 청년과 만난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여주인공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녀는 자기에겐 돈을 빌려준 상사와 돈 때문에 잔다. 그녀와 상사와의 관계를 짐작하는 직원들의 시선 앞에 그녀의 삶은 노출된다. 여주인공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상황을 바꿀 힘은 없다. 그녀는 로봇과 만나면서 진실한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지만 로봇은 로봇의 3원칙에 입각해 그녀를 떠난다. 여주인공은 자기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해야만 한다. <여행>이라는 작품에서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주인공이다. 전 남자친구는 여주인공을 차에 태우고 서울을 떠나 바다로 향한다. 가는 도중 주인공들

12) Jung Yeo-ul. Urbanites Swim Upstream: Nobody Knows What Happened by Kim Yung-ha. KOREAN LITERATURE NOW. URL: <https://kln.or.kr/lines/reviewsView.do?bbsIdx=1234>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의 관계가 드러나며 결국 바다에 도착하지만 그곳에서 ‘고무장화’라는 남자와 시비가 붙고 ‘고무장화’는 주인공 남자를 폭행한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을 모르는 척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로 돌아간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의 서로에 대한 진짜 감정, 즉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드러난다. <마코토>와 <퀴즈쇼>의 주인공들 역시 관계를 익히고 강한 감정들을 경험하고자 애쓰는 젊은이들이다. 작가는 대개 일인칭이나 삼인칭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어떤 작품에서 작가는 여주인공의 시점에서 서술하기도 하지만 김영하는 항상 현실의 모든 편린을 그려낸다. <아이스크림>, <오늘의 커피>, <약속> 같은 단편에서처럼 주인공들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반응은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순간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충동들을 드러내며 상황에 따라 행동하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기도 하고, 제 3자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수집하기도 한다. 어떤 인물들의 행위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발생하며 (예를 들어 <바다 이야기1>, <바다 이야기2>에서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괴로운 기억이 새로운 관계에 장애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연수 작가는 주인공의 내적인 성찰을 펼쳐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의 주인공은 일정 사건이나 행위 이후 그것에 관해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그의 대부분의 단편소설들은 인간의 상호관계라는 하나의 주된 테마로 통일된다. 소설 속 인물들이 처하는 상황들은 그가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즉 플롯은 보편적이다. 2009년에 한국어로 출판된 그의 작품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는 9편의 단편을 담고 있는데, “인간관계의 탐색과 같은 보편적 모티프, 특히 현대라는 포스트 유교 세계에서 고독과 소외라는 사회에 널리 퍼진 문제를 배경으로 실존적 형상을 통해 우리를 김연수의 작품 세계로 인도한다.”¹³⁾ 홀로 사는 이들이나 부부들, 예술가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 독자들, 외국인들 같은 주인공들은 크고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이러 저러한 상황 때문에 외국으로 가기도 한다. 김연수 작가는

13) Huie Bonnie. In Loneliness Begin Responsibilities: World's End Girlfriend by Kim Yeonsu. KOREAN LITERATURE NOW. URL: <https://kln.or.kr/lines/reviewsView.do?bbsIdx=77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자주 여성 서술자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젊은 나이이거나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여성 주인공은 모두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그 사건들은 현재의 삶에서 슬픈 기억으로 남거나 트리거가 되기도 한다. 주인공들에게는 꿈이 있지만 이 꿈들은 도시 공간의 반복적 일상속에서 흩어져 버린다.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인공들은 현실로부터 도피하지만 그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때문에 김연수 작가는 자신의 소설에서 물이나 비, 하늘, 태양, 달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를 자주 사용하고 소리와 신체적인 것에 주목하는 건 지도 모른다. 주인공 부부는 언뜻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대화가 부족하다. 대화의 부족은 진실되지 못하고 끝까지 말하지 못함으로 이어진다. <모두에게 복된 새해>의 여주인공은 영어를 아주 조금 밖에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인 인도인과 훨씬 더 쉽게 의사소통한다. <당신들 모두 서른 살이 됐을 때>의 여주인공은 서른 살 생일에 뉴저지로 여행 가기 위해 삼년 전부터 돈을 모은다. 그녀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낭만적인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성숙한 삶의 첫 단계를 축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화프로듀서의 조수를 하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던 남자친구가 꿈을 버리고 택시 운전기사가가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고 여주인공의 계획은 무산되고 만다. 여주인공의 생일날이 되고 그녀는 신혼 여행 차 아내와 함께 서울에 온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육촌 오빠 부부를 대접해야만 한다. 이 작품에서 김연수는 언어에 주목하는데, 오사카에서 온 육촌 오빠는 매우 강한 일본식 억양의 한국어로 여주인공과 이야기하지만 여주인공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단편집 제목과 같은 소설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서 주인공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가시간에는 호수가를 따라 달리거나 시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25살 대학 졸업생이다. 이 모임에서 그는 한 여성을 알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재능있던 제자이자 일찍 세상을 떠난 젊은 시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시적인’ 이야기는 주인공과 이 여성이 함께 시인의 시 속에 언급된 여인을 추적하도록 한다. 불투명한 미래와 전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알지 못하는 시인과 여인의 사랑에 감명받고 자기의 옛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되돌아본다. 아마도 이 작품이 이 소설집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시적인 작품일 것이다.

김영하와 김연수의 적지 않은 작품들이 여성의 시점에서 씌어진 것과 달

리 박민규 작가가 쓴 단편들의 서술자는 모두 젊은 남성들이다. 박민규 작가는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시각적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도 흥미롭다. 어떤 작품에서 그는 글자색에도 변화를 준다. 첫번째 구절들의 색은 다른 나머지 구절들의 색과 다르다. 그의 첫번째 소설집인 <카스테라>에서 주인공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거나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며, 작가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은 사람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하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들(펠리칸, 너구리, 기린, 오징어)이나 무생물(냉장고)이 주인공이거나 보조적 인물들로 나타난다. 이때 동물들은 동물일 뿐 아니라 인간의 특성도 가진다. 즉 의인화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인간 주인공들과 나란히 동물 주인공들도 등장하는 것이다. 박민규는 자주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다. 동물들은 인간의 기능을 하고 이로써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여기서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며 서로 대화하고 행동한다. 인간 주인공은 동물 주인공과 조우하면서 처음에는 말 할 줄 아는 동물을 처음 보는 보통 사람이 할 법한 반응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부조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마치 원래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단편집에 포함된 박민규의 작품들 속 주인공은 대개 젊은 남자이며 그는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혹은 모든 기회를 사용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모든 작품들은 일인칭 시점에서, 즉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의 시점에서 씌어졌다. 이런 식으로 작가는 청년의 삶에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해 가는 인생의 시기를 고찰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대학생 주인공은 현실에 적응해야만 한다. 학업을 마친 뒤 그는 벽 너머로 ‘향해’를 시작한다. 그는 이제 그 자신이며, 자기 길을 스스로 찾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소설 공간 속 현대 한국 사회는 습득한 지식을 적용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젊음은 그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어려움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자기 안에서 상황의 희극성을 발견하며 자조할 수 있는 힘을 찾는다. 몇몇 장면들을 희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상황의 과도한 비극성과 절망을 벗어나도록 돕는다. 단편 <카스테라>의 주인공인 대학 신입생은 대학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구해서 언덕 위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의 유일한 이야기 상대는 맥주집 주인과 맥주집에 가끔 찾아오는 음악 디스크를 파는 사람이다. 주인공은 속옷들이 잔뜩 쌓여 빨래를 해야 할 때만 부모님 집에 간다. 고독한 주인공은 티비나 오디오 같은 다른 가전제품보다 유난히 소음이 심한 냉장고에 주목한다. 처음에 주인공은 이 소음 때문에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냉장고의 바로 이 소음 덕분에 자기가 외롭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냉장고는 친구의 대체제가 된다. 단편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서 주인공은 상업계 학교에 다니며 주유소와 편의점, 지하철 푸시맨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다. 그의 가족들은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엄마는 고된 일과 피로로 병원에 입원했고 할머니는 약에 의지해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망해가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 그리하여 주인공에게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것 외에 다른 탈출구는 없다. 그에게는 그만의 산수, 여기저기서 번 푼돈들의 끝없는 계산들이 있었다. 지하철 푸시맨 일을 시작하면서 아들은 자기 아버지도 인파로 가득 찬 열차 속으로 밀어 넣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아버지와 아들간의 특별한 관계가 생겨난다. 마치 주인공과 아버지의 이별을 준비하는 듯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그 보잘 것 없는 직업조차 잃은 뒤 사라져 버린다. 주인공이 아무리 아버지를 찾아다녀도 헛수고였다. 결국 지하철에서 일을 하는 도중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다가 잠깐 졸던 주인공의 눈 앞에 플랫폼에서 있는 기린이 나타났는데 그는 이 기린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챈다. 주인공은 기린에게 자신과 가족의 근황을 들려주지만 기린의 잿빛 눈동자는 이해의 눈빛을 보이지 않았다. 기린은 자신이 아버지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습니까? 저는 기린입니다” 박민규의 작품의 표면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이라는 이념이 놓여있다. 가난한 세계와 부유한 세계는 평행선을 그리며 결코 교차하지 않는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은 관계를 밝혀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작품에는 연애 갈등조차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소비사회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위치한 주인공의 변화하는 상태의 실마리는 주어진다. 작가는 고도의 기술이 단순한 인간 교류를 대체한 세상, 사람과 사물 간의 경계, 나와 나와 아닌 것의 경계가 지워진 실용적 세상에 사는 외로운 주인공에 관해 쓴다.

김중혁 작가는 러시아 독자들에게 단번에 인기를 얻은 작가이다. <독서하는 페테르부르크>라는 국제적 프로젝트(이 프로젝트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야코프스키 기념 중앙시립도서관 주최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에 대한민국이 참여했던 2018년에 <악기들의 도서관>(2017년 러시아어로 출판된)의 작가 김중혁이 해외작가상 2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 이 단편집이 러시아 독자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아마도 여기 담긴 모든 작품들의 주인공이 무언가에 몰입하거나 몰입당했다는 공통의 컨셉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인 질문이 단편들의 플롯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김중혁 작가 자신도 영화광이자 음악광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러한 그의 몰입이 그의 주인공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모든 단편들은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됨으로써 서술은 주관성을 띤다. 독자는 마치 기분 좋은 이야기 상대와 만나 자기 경험과 관찰을 공유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플롯의 생생함과 역동성, 미묘한 유머, 눈물을 통한 웃음, 세계를 향한 ‘아이 같은’ 시선 등과 같은 작가의 문체적 특징들이 관찰된다. 김중혁 작가의 주인공들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 또는 중년의 사람들이다. 촉망받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다양한 제품들의 매뉴얼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사장, 초보 디제이, 악기점 직원, 계속 취업 면접을 보는 젊은이들, 젊은 기타리스트, 상점에서 어머니를 돕는 소년, 공연 기획자와 그의 예전 동창 등. 주인공들 중 일부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직 적합한 직업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 작가는 주인공들의 가족 관계나 일상이 아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에 대한 몰입에 관심을 집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음악에 대한 몰입, 소리나 단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 아마 김중혁 작가는 이 경우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¹⁴⁾ 그래서 단편 <자동피아노>에서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피아

14) Остранение –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ринцип изображения любого явления или предмета как впервые увиденного, выпавшего из привычного контекста,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в новой, неожидан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Эффект остранен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дистанцию между изображаемой реальностью и воспринимающим сознанием, которое видит в привычном и обыденном нечто странное, привлекающее внимание новизной и необычностью. Термин, введенный Виктором Шкловским (1914). URL: https://dic.academic.ru/dic.nsf/enc_literature/3525/%D0%9E%D1%81%D1%82%D1%80%D0%B0%D0%BD%D0%B5%D0%BD%D0%B8%D0%B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니스트인 비토 제네베제 형상이 플롯에 도입된다. 그는 콘서트를 녹음할 때 한번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단독콘서트 개최에 동의한 적도 없고 콘서트 홀을 방문한 적도 없다. 공연 경험이 많고 어떤 피아노로든 연주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주인공은 처음엔 “음악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 입니다”라는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의 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아니스트가 사망한 뒤 주인공은 비토 제네베제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연주의 기교나 그의 얼굴 표정도 의미 있지만, 어디든 떠도는 음악이 있고, 피아니스트의 의무는 자신의 연주를 통해 이 세계의 소리가 사라지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는다. 바꿔 말하자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음악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단편 <매뉴얼 제너레이션>의 주인공은 제품 매뉴얼을 제작하고 다양한 매뉴얼을 수집하기도 하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다. 매뉴얼 제작이라는 것은 보통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것을 연애편지 쓰는 일에 비유한다. 매뉴얼 제작 일은 재미없고 지루한 작업이 아니라 흥미로운 일로 변화하고 주인공은 지루한 매뉴얼의 상투적인 텍스트를 시적 메타포로 바꾸는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비닐광 시대>, <악기들의 도서관>, <나와 B>의 주인공들은 음악에 몰입한 사람들이다. 주인공은 디제이하는 법을 배우지만 어떤 사건 이후 레코드 상점에서 하는 일 그만 두고 디제잉을 배우는 것도 그만두게 된다. 주인공은 친구와 함께 믹싱에 사용할 오래된 음반들을 찾다가 어느 날 엄청난 레코드 컬렉션이 있는 지하실에 갇히게 된다. 한편으로 레코드는 옛 시대의 메아리이고 다른 한편으로 주인공은 전자 음악에 믹싱으로 사용할 디제잉을 배우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옛 음악과 새로운 음악을 결합한, 완전히 다른 두 작품으로 만든 자기 음반을 자신을 감금했던 남자에게 선물하고 싶어한다. <나와 B>의 주인공은 일렉기타 연주를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일렉기타를 연주하면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할 때와 달리 전기가 오르는 느낌을 받는다. 초보 단계의 음악가들은 기타연주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지하연습실에서 생활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고 지하실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악기 도서관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동차 사고 이후 자기 삶

05.09.2023).

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고 깨닫는다. 악기 상점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악기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악기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악기가 연주하는 멜로디가 아니라 악기가 내는 소리 자체를 들을 수 있도록. 악기 도서관이라는 표현 자체는 모순적인데 바로 이 모순성에 김중혁 작가의 주인공들의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표준적이며 평범한 틀을 넘어서 그 자체로는 기쁘지 않은 자기 존재에 절망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열정의 이념을 부여하려는 갈망. 직장을 구하면서 면접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는 <유리방패>의 스물 일곱 살 주인공들을 보자. 그들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매번 컨셉을 정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주인공들이 지하철에서 형클어진 실타래를 풀고 있는 영상이 우연히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그들의 인생은 바뀌는데, 이제 미학자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초대하고 그들의 퍼포먼스의 고차원적 의미를 ‘해석’하려 애쓴다. 사실 주인공들은 추상예술과는 거리가 멀었고, 끊임없이 면접만 보러 다니는 자신들의 무의미한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 결과 주인공들은 이제 더이상 면접을 보러 다니는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오히려 면접심사관이 되지만, 면접심사관이 된 그들은 여전히 기발한 컨셉들을 계속 생각해낸다. 그리고 김중혁 작가는 다시 결합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결합한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유리방패. 방패의 보호 기능은 주인공들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 사이의 유리장벽이 된다. 그러나 이 유리장벽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주인공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어린이의 상상력을 가졌었던 주인공들은 자신의 ‘어린 아이다움’을 버려야만 했고 ‘어른’ 세계의 일부가 된다. 또다른 단편 <엇박자D> 역시 음악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중 한 명은 음치이다. 서술자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음치 친구 때문에 공연을 망쳐버렸던 학생시절의 일화를 회상한다. 주인공은 20년이 흐른 뒤 유명한 음악가이자 떠오르는 스타가 참여하는 음악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이 친구와 다시 조우한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이 스타와 친한 사이였고 이 프로젝트에서 그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콘서트의 끝 부분에서 학창시절 이 친구가 망쳤던 바로 그 노래를 22명의 음치가 합창한다. 이 단편에는 음악에 대한 애정이 숨겨져 있다. 여기서 연주관 특별한 음감이나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고 그것을 가

습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이 작품집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기쁨 없는 존재에 색채를 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에 몰입하려고 애쓰고 의미를 찾으려 살아간다. 김중혁의 주인공들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이 비록 우스꽝스럽고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반복되는 일상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은 어떤 순간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일상성을 달리 보기 시작한다(낯설게 하기 기법을 상기하자).

위에 언급한 작가들의 주인공들은 다양한 사회계층과 연령의 대표자들로서 대개 사무직 종사자들이거나 서비스업계 종사자들, 창작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작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커플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 연인 관계에 대해 그린다. 김영하 작품의 일본인이나 김연수 작품의 인도인처럼 외국인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 주인공들은 실제 지명이 쓰인 도시들을 이동하고 방이나 사무실, 카페나 호텔 등과 같은 장소에 등장한다. 주인공들은 한국 바깥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같은 도시나 마을에 있기도 한다. 김연수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도시에서 바다로 이동하며 작품에는 바다나 비, 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한다. 동시에 많은 작품에서 ‘물과 불’, ‘비와 태양’에 대한 대립이 나타나고 소리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박민규와 김영하는 아이러니를 사용하고 슬픈 것들에 대해 어느정도 유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점, 부조리한 대화를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특히 김연수의 작품은 진실된 감정의 상실에 대한 슬픔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애란 작가는 25세에 <달려라, 아비>라는 단편을 쓰고 2005년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영향력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젊은 작가 중 한명이다. 작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실 인식의 깊이와 진실성으로 문학비평가들과 독자들의 주목을 단번에 받았다. 당시 이 작가의 단편집은 아직 한권도 출판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이 현상은 더 특별했다. 러시아에서 김애란 작가 작품들을 활발히 번역하고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5년에 출간된 첫번째 단편집 <달려라, 아비>는 김애란 작가가 2003-2005년 동안 쓴 작품 모음집이다. 단편집의 서문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문학이 나의 신앙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소설을 쓰는 데 배움이나 경험이 반드시 중요하

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 안의 어떤 정직.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애란 작가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 이십 대 젊은이들과 그들의 삶에 관해 쓴다. 이 소설집에서는 가족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한다.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와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적 변화들과 연동되며, 경제적인 문제들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상실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결국 무슨 결과로 이끄는지를 이 책의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아버지들과 함께 있을 때 주인공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는지에 독자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7년 김애란은 두번째 작품집인 <침이 고인다>를 발표한다. 이 작품집의 러시아 번역판 출판을 계기로 2015년 한국 번역아카데미와 한러친선협회(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선의 집)의 후원 아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김애란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이 작품집은 젊은 세대의 삶에 관한 여덟 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공들은 구직, 또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로 바쁜 젊은이들이다. 그들이 아직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가족의 굴레에 지배되고 있다. 김애란 작가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88만원의 월급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1997년 IMF사태가 낳은 880세대를 독자에 소개한다. 이 작품집으로 김애란 작가는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다.

2023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기페리온 출판사에서 김애란의 단편집 <바깥은 여름>이 출간되었다. 출간된 지가 얼마 안 된 만큼 면밀한 인문학적 분석은 좀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작품집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성찰의 예라는 점은 언급하고 싶다. 21세기 초 첫 20년간 여성 서사의 두 가지 벡터가 특히 눈에 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여성작가들의 시민적 입장과 유명한 문화계인사들과 고위직 관리들 사이에서 터진 일련의 성스캔들 이후 벌어진 미투운동과 관련된 여성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것은 야만행위다”라는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표현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월호 참사는 창작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작가들은 기록 산문들을 모아 전집을 발간했다. 2014년 12명의 작가들의 작품집 <눈먼 자들의 국가>가 출간되었다. ‘4월 16일 문학’이라는 용어도 생겨

났다. 사건을 목격한 작가들에게는 의미화 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 후 두 가지 경향의 산문이 출현한다. 김탁환의 작품처럼 실제 역사적 사건을 예술적 서사로 재현하는 방식,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상실이라는 테마를 플롯으로 만든 비극에 대한 접근. 작품집 말미의 작가의 말에서 김애란은 2017년 여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름을 맞는다. 누군가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거나 놓은 내 친구들처럼 어떤 것은 변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인 채 여름을 난다. 하지 못한 말과 할 수 없는 말 해선 안 될 말과 해야 할 말은 어느 날 인물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인물이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말은 무얼까 고민하다 말보다 다른 것을 요하는 시간과 마주한 뒤 멈춰서는 때가 잦다. 오래전 소설을 마쳤는데도 가끔은 이들이 여전히 갈 곳 모르는 얼굴로 어딘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들 모두 어디에서 온 걸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을까.” 김애란은 주인공들을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룬다.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노력한다. 김애란은 소설이라는 공간을 통해 찾아들지 않는 고통의 느낌에 천착한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이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작가는 트라우마를 겪은 주인공들과 함께 이 상실의 순간을 살아내고 상실의 고통을 견뎌낸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잃은 뒤 얼마 간은 가족끼리도 아이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금기는 사라지고 부부는 이 고통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단편 <노산성과 에반>에서 소년은 아버지 없이 남겨지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 그는 버려진 개를 발견하고 아버지에 대한 말하지 못한 사랑을 그 개에 쏟아붓는다. 다른 작품에서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거리에서 노인의 죽음을 목격한다. 주인공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상호이해와 사랑을 잃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의미화 방법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이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매우 역동적인 이야기들도 아니지만, 작품을 읽은 뒤 생각하면 할 수록 여운이 짙게 남는다. 김애란 작가는 시간의 징후를 잘 포착하며 그녀의 작품들은 일상의 시학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첫번째 단편의 제목은 <입동>이지만, 작품집 전체의 제목에는 여름이 있다. <눈먼 자들의 국가>나 <침묵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들도 있지만 김애란은 여름의 따사로움과 인간 삶의 존엄과 가

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단편이라는 공간에서 주인공들은 일상의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에 가고 관계들을 꾸려 나가고 누군가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또
누군가는 과거의 사람을 찾으려 애쓴다. 이러한 주인공들에게 어느 순간
비일상적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주인공은 자기 삶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예
전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도 약간의 희망을 품게 된다. 이 모든 작
가들은 작품 속에서 일상성의 테마를 다루고 주인공들을 탈영웅화하며 부
서지기 쉬운 삶과 인간의 약함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
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인공의 힘과
단단함 또한 보여준다. 이러한 모든 단편들의 주인공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도 반복되는 일상을 배경으로 자기 자신으로 남으려는 노력, 그 선택
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친구. 문학동네, 2009.
2. 김영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문학동네, 2010.
3. 김중혁. 악기들의 도서관. 문학동네, 2008.
4. 김애란.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5. Бойм С. Общие места. Мифология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Москва, 2022.
6. Ким Ёнсу. Девушка конец свет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иперион». СПб, 2014.
7. Ким Ёнха. Никто не узнает.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талис». Москва, 2016.
8. Ким Чжунхёк. Библиотек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иперион». СПб, 2017.
9. Ким Эран. Беги, папа! ЛУЧ. Москва, 2015.
10. Ким Эран. А вокруг было лето.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иперион». СПб, 2023.
11. Лотман Ю. М. Беседы 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Быт и традиции русского дворянства (XVIII - начало XIX века). СПб, Искусство, 1994.
12. Пак Мингю. Коврижк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иперион». СПб, 2019.
13. Эко У. Отсутствующая структура. Введение в семиологию. СПб, «Петрополис», 1998.
14.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URL: <https://iphlib.ru/library/collection/newphilenc/document/HASH6743a8d87bb13ae8cfec67>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15. Черняк Мар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Поэтика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й масс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URL: <https://lit.wikireading.ru/4547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16. Струкова Т.Г.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и литература. URL: <https://culturolog.ru/content/view/3424/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17. Kang Yu-jung. Popular Culture Connects with Literature: Kim Young-ha, Park Min-gyu, Kim Kyung-uk, Kim Junghyuk. KOREAN LITERATURE NO

- W. URL: <https://kln.or.kr/lines/essaysView.do?bbsIdx=156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18. Кузнецова Т.Л. Коми рассказ рубежа XX-XXI веков: особенно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URL: <https://cyberleninka.ru/article/n/коми-рассказ-аз-рубежа-хх-ххи-веков-особенности-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развития/viewe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19. Jung Yeo-ul. Urbanites Swim Upstream: Nobody Knows What Happened by Kim Young-ha. KOREAN LITERATURE NOW. URL: <https://kln.or.kr/lines/reviewsView.do?bbsIdx=1234>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20. Huie Bonnie. In Loneliness Begin Responsibilities: World's End Girlfriend by Kim Yeonsu. KOREAN LITERATURE NOW. URL: <https://kln.or.kr/lines/reviewsView.do?bbsIdx=77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9.2023).

Abstract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in Literary Works:
Focusing on Korean Short Stories from 20th Century to the
Early 21th Century**

Choi, Inna
(St. Petersburg University)

Humans are at the center of literature, and the realm of everyday life in literary works encompasses many different aspects of human existence. This can include the personal and domestic life of a character, encompassing all forms of existence and daily routines, or it can involve various emotional expressions triggered by everyday situations.

In this paper, we will first explore the meaning of the term 'everyday' in the realm of literature. Then, we will examine specific examples of how everyday issues are depicted in short stories by contemporary Korean writers from the late 20th and early 21st centuries.

The short story writers I have selected for my thesis are essentially contemporaries, educated around the same time. However, each of them possesses their own life experiences that enable them to create a diverse range of characters within the artistic space of literature. At times, they depict characters so realistically that it feels as if we are witnessing a documentary account of an event rather than reading a novel. In the subsequent chapters, we will analyze specific works to understand how they incorporate everyday issues into their narratives.

Key words: Everyday Life, Contemporary Korean Short Stories, Kim Ae Ran, Kim Yeon Su, Kim Young Ha, Kim Jung Hyuk, Park Min Kyu

АСЕАН в контекст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и Россия(конец XX – начало XXI в.)

Вартаньян Эгнара Гайковна^{*}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APR)의 전략적 맥락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개발 문제를 고찰한다. 이때 이 전략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드러난다. 논문은 1997-1998년의 ‘금융 폭풍’과 2008-2013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된 지역 개발의 어려움 또한 살펴보고, 시간순으로 1990년대부터 2013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를 다룬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조직 내에서 통합된 대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경제 통합의 길로 더 나아가고자 열망하고,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빠르게 발전하는 APEC 국가들의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국내 시장과 주로 지역 통합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 및 기술 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 아시아 태평양, 아세안, 러시아, 상호작용, 지역 정책, 안보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конца XX – начала XXI в. важн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АТР). Разумеется, оценки ее удельного веса в мировой торговле, промышлен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обмене колебл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акие страны включаются в состав региона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Несмотря на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 в районе Тихого океана, очевидно, что

^{*} 쿠반 국립대 교수, vartaneg@yandex.ru

система и структур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формируется четырьмя державами: США, Японией, КНР, Россией и каждая страна исходит из критериев собстве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На долю АТР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60% мир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50%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48% мирового притока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13, с. 2]. Растущая значимость этого регион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несомненна.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с начала 1990-х гг.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в Малайзии, Южной Корее, Китае, Индонезии, Таиланде, Сингапуре, на Тайване [19, с. 48]. Характерной черт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 АТР явилось неуклонное углубление их хозяйственно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д нам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общность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я. Вместе с тем в регионе АТР набирает темпы 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особенно эти процессы затрагивают страны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ЮВА),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ены в Ассоциацию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СЕАН).

Толчок многостороннему переговорному процессу в АТР был дан не только крушением биполярной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ажнейшим фактором стрем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 региона к укреплению стабильности стали быстрые тем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АТР. Одновременно региональные элиты пришли к осознанию того, что вызовы,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ется человечество, могут быть преодолены коллективными усилиями.

Интерес России к региону АТР, Восточ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меет свою давнюю историю. Еще сподвижник Петра I Ф.И. Саймонов обратился к царю с проектом отправиться в Восточную Азию через Северный Ледовитый океан и Камчатку, а кругосвет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М. Ф. Крузенштерна вероятно предполагало в будущем открытие торговых пунктов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17, с. 48]. В 1890–1891 гг. будущий российский император Николай II посетил Восточную и Юго-Восточную Азию, в том числе индокитайские города Бангкок и

Сайгон [14].

СССР имел тесные связи с Вьетнамом, Камбоджей, Лаосом, Индонезией. Однако в конце 1980-х – начале 1990-х гг. наступил период ухода России из региона ЮВА. Между тем последняя треть XX в. была отмече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ростом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траны АСЕАН в конце XX в. составили зону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х и устойчивых темп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 мировых масштабах. Свидетельство тому – данные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с 1970 по 1990 гг.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живущего за чертой бедности, снизилась в Индонезии с 60 до 15%, в Малайзии – с 18 до 2%, на Филиппинах – с 35 до 21%, в Таиланде – с 26 до 16% [15, р. 22]. Вообще АСЕАН стала примером региональной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за пределами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Главное отличие Ассоциации от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 отсутствие каких-либо над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ститутов. Вместе с тем страны АСЕАН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сближение друг с другом ради достижения общих целей,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негативным проявлениям процесса глобализации. Отсюда – упор на развитие внутригрупп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В рамках АСЕАН удалось если не полностью гармонизировать интересы входящих в неё государств, то хотя бы сгладить их противоречия [8, с. 22].

Окончание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повлияло на выбор приоритетов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тран АСЕАН. Более того, некотор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читают, что АСЕАН – продукт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В эпох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двух мировых систем США распахнули двери своего внутреннего рынка для товаров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нвестиров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в их экономику. Н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ерипетии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АСЕАН не стала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блоком, а стремилась подчеркнуть сво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идеям нейтрализма. В своей

прак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раны-участницы АСЕАН стремились сочетать несомненную прозападную ориентацию, обеспечившую им американский военный зонтик и массированные поставки современны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я из стран Запада, с сохранением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трин, декларирующих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принципам нейтралитета и укрепл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3, с. 45]. АСЕАН использует отношения с внерегиональными странами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материальных, финансов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ресурсов с целью решения задач, связанных с собствен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азвитием и упрочением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озиций, прежде всего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В 2008–2009 гг. около 80% всег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АСЕАН строилось за счёт торговли с внерегион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4, с. 24].

Азиат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оится на основе диалога и координации действи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АТР,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 двусторонней и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основе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форумами.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приобретают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АСЕАН, которая во все большей мере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центр влияния в АТР.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ид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АСЕАН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Члены АСЕАН рассматривают Россию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держав региона. Росси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тремится найти свое место на рынке АСЕАН.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в развитии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ТР явилось создание в 1994 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рума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АРФ). В АТР Асеановс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приобретает всё больший авторитет и влияние, там на высо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обсуждаются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тран АСЕАН и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меры по их решению [1, с. 44]. Лидирующую роль в создании АРФ сыграли страны АСЕАН, за которыми закрепились роль одного из важ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олюсов региона, важную роль имело

также вовлечение в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кит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ые создали «канал» для решения многих проблем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9, с. 29]. На второй сессии АРФ в 1995 г. был принят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й документ Форума – «Концепция АРФ», определяющая его цель – содействие миру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процветанию в АТР. С учетом специф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возможны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 балансе сил, участники АРФ признали необходимой выработку н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основе взвешенного подхода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ТР.

В связи со становлением нов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АСЕАН +3 («+3» – это Япония, Китай, Южная Корея) в 1997 г., России приходится считаться с вновь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ситуацией в сопредельном регионе. Практически к югу от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до северного побережья Австралии создана громадная зона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с населением около 2 млрд человек и совокупн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дуктом в 2 трлн дол. [16, с. 5].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АТР действуют три основных цен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итяжения: 1) «Большой Китай» – КНР, включая Гонконг, Тайвань, с которыми тес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ингапур; 2) Япон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3) группа стран АСЕАН.

В 1998 г. Россия вступила в крупнейшую региональ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АТЭС,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ит 21 государство. АТЭС сегодня – это 56% мировой ВВП, 49% общего объема мировой торговли, более 40%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41% населения земли [10, с. 61]. Круг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решает АТЭС, можно обозначит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формир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лаживани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стран –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АТЭС, которое создавалось как форум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все более стало превращаться в саммит лидеров стран-участниц для выработки решений по глоб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во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10, с. 63]. Мо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АТЭС – это орган, содействующий реализации целей и принципов Всемирной торг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ТО) в регионе АТР. Глава ВТО всегда присутствует на заседаниях и саммитах АТЭС.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АТЭС как локомотив интегр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кольца» [10, с. 61].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рынками россий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экспорта в страна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читаются Китай и Япония, однако в перспективе крупным импортером российск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может быть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Если весь предшествующий период существования АСЕАН ее участники из числа 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первой волны» (Индонезия, Малайзия, Таиланд, Сингапур, Филиппины)¹⁾ умело избегали чересчур тесного и жесткого сближения с Западом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 события, последовавшие за кризисом конца 1990-х гг.,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изменили ситуацию. Весьма красноречиво признание директора-распорядителя МВФ М. Камдессю о том, что «нет худа без добра», поскольку оказавшим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странам ЮВА «волей-неволей придется теперь выполнять те рекомендации, которые им давно предлагали кредитно-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Запада» [6, с. 31]. Диалоговыми партнерами АСЕАН формата АСЕАН+6 были Китай, Япо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ндия, Австралия и Новая Зеландия.

В условиях миро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2008–2013 гг. страны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частности, Китай, Южная Корея, Япония,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альной самозащиты от кризиса» договорились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увеличи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финансовый

1) В 1990-е гг. в АСЕАН вступили Бруней, Вьетнам, Лаос, Мьянма, Камбоджа.

резерв с 80 млрд дол. до 120 млрд, причем 20% этих средств должна была внести «асеановская десятка», 80% – Китай, Япон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18, с. 14]. Кризис оказал серьёз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экономику и расстановку сил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щ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АСЕАН. Последствия кризиса для стран региона оказались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ми, многогранными и долгосрочными, чем во время кризиса 1997–1998 гг., поскольку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компании и банки в условиях резкого дефицита ликвидности продолжили выводить свои капиталы, разрушая тем сам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среду и обескровливая реальный сектор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3, с. 45].

Кризис 1997–1998 гг., при всём его драматизме, в рамках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занимал периферийное и локальное по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у место. Он был спровоцирован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тем, что банки и компании стран ЮВА набрали слишком много кредитов, не имея достаточных валютных резервов. Кризис же 2008–2013 гг. носил не сугубо финансовый, а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не региональный, а глоб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следствия его для региона оказались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ми, чем это было в 1997–1998 гг. Но страны АСЕАН извлекли опыт из кризиса десяти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и приняли меры по увеличению капитализации банков, нараст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алютные резервы, усилили регулирующую функцию государства в управлении финансами и т. д. Понятно, что локальных мер в национальных рамках недостаточно, поэтому лидеры десятки договорились ускорить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рамках АСЕАН. С этой целью была принята стратег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еди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ынка, повышена координирующая ро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Ассоциации, усилен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кажд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коллективно принимаемые решения, активизирован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 экономики, финансовых,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лужб. Всё

это привело к замет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Объёмы торговли внутри Ассоциации в 2008 г. выросли до 400 млрд дол., объём торговли стран АСЕАН с Китаем в 2008 г. вырос до 231 млрд дол., с Южной Кореей превысил 61 млрд дол. На случай возможного резкого падения курса национальных валют своих стран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СЕАН, Китая,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в мае 2007 г.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резерва в 80 млрд дол. [5, с. 9–10]. В условиях миро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страны АСЕАН держали путь к коллективным действиям, т. е. к интеграции.

В контексте рост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вторитета АСЕАН и расширения её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Генераль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вязей АСЕАН, разработанный в 2010 г. с помощью Азиатск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ля АСЕАН в Токи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ООН для Азии и Тихого океана (ЭСКАТО).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 реконструкцию портов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окладку газопровода, сети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и т. д. Эти проекты призваны были качественно укрепить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ую сопряженность стран АСЕАН и сократить существующий разрыв в уровн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между старыми и новыми членами АСЕАН. Это самый крупны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Ассоциации за всю её историю,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сего региона,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его различ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11, с. 3].

В 2010 г. была создана зона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Китай – АСЕАН, которая стала крупнейшей в мире подобной зоной, включившей в себя развивающиеся страны с 1,9-миллиардным населением, общим ВВП в размере 6 трлн и суммарным объемом торговли в 4,5 трлн [7, с. 35]. В 2012 г. после пятилет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США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о ратифициров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зоне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которое стало для США крупнейшим торговым договором со времени подписания в 1994 г. соглашения о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ой зоне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NAFTA) с Канадой и Мексикой [7, с. 35].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процесса построения сообщества АСЕАН является интеграция в банковской сфер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тому,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государств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модел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вижимые именно банковским сектором. Ес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степень финансово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экономик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целом, то становится очевидным, что основной движущей силой расширения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тенденций «снизу» выступает Япония.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ет также такой финансовый центр региона, как Сингапур. Оба государства активно наращивают с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региона, параллельно расширяя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формируя региональную финансовую ось «Япония – Сингапур» [2, с. 41].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 вызовом для Ассоциации государст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является американско-китайск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В плане 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одолжают зависеть от США. Но 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для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стран АСЕАН основны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ером и крупнейшим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ором стал Китай. Эта двойная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США и Китая стала трудноразрешимой задачей как для Ассоциации в целом, так и для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ходящих в нее [12, с. 4].

Мо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н АСЕАН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в значительно мере благодаря становлению современ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также за счёт импорта технологий из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Запада. Для мн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зона АСЕАН, располагающая богатыми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ой, стала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исследования автор пришел к следующим выводам:

1. В конце XX – начале XXI в. наблюдается неуклонное возрастание

удельного веса АТР в системе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гион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круп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финансов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человеческие ресурсы, а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и иннова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Налицо все большее расширение взаимных контактов стран АТР,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орговых.

2. В АТР набирает темпы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особенно эти процессы затрагивают страны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частности, АСЕАН. АСЕАН безусловно признана как влиятельная и авторите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ричём в рамках не только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о и всег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3. Страны-члены АСЕАН в начале XXI в. стремятся стать двигателем интеграции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4. Стремление большинства стран АТР, объединившихся в рамках организации АТЭС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по пу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не может не затраги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и. Большим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развитии торгово-интеграционных связей с АСЕАН обладает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Учет опыта АСЕАН, особенностей её интеграции в рамках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оказавшей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объективные трудности, важен для России.

5. Юг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стала регионом, в котором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2008–2013 гг. привел к серьезным изменениям не только в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ах, но и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прежде всего в соотношении сил и влияния между Китаем и США.

6.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 АТЭС – быстро развивающиеся экономики мира с большим внутренним рынком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начите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основе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техническ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참고문헌

1. Агафонов Г.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крепнет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4. № 4. С. 41–44.
2. Арапова Е. Я. Интеграция в банковской сфере АСЕАН: проблемы и возможности // ААС. 2014. № 2. С. 37–41.
3. Вартамян Э. Г., Деружинский Г. В. Страны АСЕАН: из истори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 Экономик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2012. № 10. С. 43–47.
4. Воронин А. С. АСЕАН: ответ на вызовы глобализации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9. № 5. С. 23–26.
5. Воронин А. С. АСЕАН. Испытание на прочность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9. № 8. С. 9–10.
6. Гусев М. В поисках формулы безопасности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4. № 6. С. 30–35.
7. Дроздова Л. В., Пале С.Е. Страны АСЕАН: курс на объедин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 ААС. 2014. № 3. С. 33–37.
8. Другов А. Центросиловой фактор в регионе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1997. № 9. С. 21–24.
9. Конаровский М., Моргулов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спытание на прочность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0. № 2. С. 29–33.
10. Кошкин А. Россия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8. №1. С. 63–64.
11. Локшин Г. М. Россия – АСЕАН: новые проекты и форма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11. № 2. С. 2–7.
12. Мартынова Е. С. Соперничество США и Китая в Азии: чем это грозит АСЕАН?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14. № 2. С. 4–8.
13. Мионов С. Расши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транами АТР – это осознанный выбор России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 8. С. 2–4.
14. Наследник престола с татуировкой дракона. Как Николай II путешествовал по Ази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roscongress.org/blog/naslednik-prestola-s-tatuirovkoy-drakona-kak-nikolay-ii-puteshestvoval-po-azii/?ysclid=lnq98ihwzu2299091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5.10.2023).

15. Титаренко М. Российские интересы в АТР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5. № 4. С. 2–8.
16. Цветов П. «Восточное измерение» России и страны АСЕАН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7. № 3. С. 48–50.
17. Цветов П. АТЭС и Россия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08, № 1. С. 9–14.
18. Чуфрин Г. Деловые партнеры или просто соседи?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1993. № 3. С. 48–50.
19. Newsweek. New York. 1983. March 1.

Abstract**Russia and ASEAN in the Context of the Asia-Pacific Strategy**

Vartanyan E. G.
(Kuban State University)

The repor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blem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in the context of its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APR). The role of Russia within this strategy is shown. The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ssociated with the “financial storm” of 1997–1998, as well as the even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2008–2013, are considered. Chronologically, the article covers the period from the 1990s. until the end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13. It is concluded that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Asia-Pacific countries united within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organization to move further along the path of economic integration cannot but affect the national interests of Russia. The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of APEC countries have a large domestic market for goods and services, and opportunities for significant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rimari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programs.

Key words: Asia-Pacific, ASEAN, Russia, Interaction, Regional Policy, Safety

Хван Джинхи: история куртизанки и ее стихов

Смертин Ю. Г.*

국문 초록

В статье анализируется 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Хван Джин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поэтесс и куртизанок эпохи Чосон. Ее красота, поэтические и музыкальные таланты вошли в легенды, а стремление к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ей свободе стало предметом вдохновения для женщин, бросающих вызов нормам традиционной морали. Основной вывод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Хван Джини стала своеобразным культурным символом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тиражируемым через романы, фильмы и телесериалы.

주제어 : Хван Джини, Мёнволь, кисэн, Чосон, поэзия, сиджо

Героиня наше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была выдающейся поэтессой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азвлекательницей мужчин, или кисэн («искусной женщиной»). Чтобы лучше понять ее личность, поступки и творчество,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положению женщин в Корее. Роль и поведение женщины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пределялись конфуцианскими стереотипами: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внимательной невесткой, послушной женой, мудрой матерью и,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мужа, целомудренной вдовой. Она воспринималась

* 쿠반 국립대 교수, usmer@hotmail.com

конфуцианским обществом не как уникальная личность, а как важная социально-биологическая функция, заключающаяся в рождении сынов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правлять ритуал почитания предков. Любовь и даже проявления неж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женам и наложницам не приветствовались общественной моралью [8].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мужские потребности в симпатии, понимании и привязанности находили ответ в красивых, жизнерадостных, образованных и умных куртизанках-кисэн.

Красота большинства известных кисэн вошла в легенды. Они выступали на банкетах и други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были желанными партнершами для сексуальных развлечений людей, готовых дорого заплатить за удовольствие, но их добровольное согласие на связь было обязательным

В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осталось немало имен знаменитых кисэн, но самой выдающейся куртизанкой, судя по легендам и народным сказам, была Хван Джини (кор. 황진이, ханча 黃眞伊). Достоверных данных о ее биографии не существует. Судя по некоторым косвенным данным, она родилась около 1506 г. на севере Кореи в г. Кэсон. Ее отцом был дворянин-янбан, а матерью простая служанка, вступившая с ним в любовную связь [12, с. 98-100]. Поэтому незаконнорожденная девочка, как и ее мать, принадлежала к наследственному низшему классу чхонмин, в которую входили раб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зираемых профессий: мясники, плетельщики корзин, различные развлекатели и шаманы [2].

Джини, с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отличалась красотой, а также музыкальными и поэтическими талантами, т. е. теми качествами, которыми должна обладать успешная кисэн. Решение о будущем дочери, видимо, приняла мать, но легенды говорят, что это был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й выбор Джини после романтической и трагической любовной истории. Мотивировала она свой поступок неожиданной смертью любимого юноши-янбана, и осознанием мимолетности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В последнее трудно поверить, потому что обучению ремеслу кисэн начиналось с очень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иногда с восьми лет.

В возрасте 15 лет Джини стала зарабатывать на жизнь. Почти сразу же она сошлась с аристократом по имени И Сэн, человеком добрым и уравновешенным, который, будучи намного старше ее, стал ей чем-то вроде наставника. Они совершили длительную поездку в знаменитые Алмазные горы (Кымгансан), что являлось почти обязательным ритуалом для людей высокой культуры. Интересно, что они путешествовали без слуг и денег, выпрашивая еду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Джини даже пришлось продать сексуальные услуги монаху в обмен на кров [6].

Клиенты знали Джини по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именем Мёнволь (кор. 명월, ханча 明, («Ясная луна»)), которое хорошо отражало главные черты ее личности. Она привлекала мужчин естественной красотой;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кисэн не пользовалась гримом, одевалась скромно, но элегантно, использовала минимум украшений. Мёнволь обладала ясным умом, держалась с мужчинами на равных. Если прибавить к этим нетрадиционным для кисэн качествам выдающиеся музык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и поэтический талант, становится понятным тот необычайный успех, который Джини имела у аристократов, привыкших к более традиционному поведению своих любовниц.

Рассказывают, чт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чиновник Со Сэян, демонстрируя перед друзьями свое женоненавистничество, поклялся, что проведет с Мёнволь месяц, а затем уволит ее без всякого сожаления. Кончилось тем, что он умолял ее остаться, а она отказалась сочинить прощальн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9, р. 69]. Это было очень огорчительно для спесивого янбана, поскольку стихи Джини была уже широко известна среди образованного класса.

Здесь необходимо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феномене поэзия кисэн, уникальном явлении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Свои чувства многие из них

доверяли стихам, которые стали высшим достижением корейской любовной лирики. Их специфиче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статус позволял свободно говорить о своей любви к мужчинам, игнорируя конфуцианские формальности и этическое лицемерие. Кисэн писали стихи в классическом жанре сиджо, чрезвычайно популярном в эпоху Чосон (1392–1910 гг.) [3, с. 3-17]. Такое лирическ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состояло из трех строк и напевалось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од влиянием кит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тихотворчество в Корее стало занятием образованных мужчин, рассматривавших его как средств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умы правителей и равных себе. Темы в мужских сиджо во многом повторяли китайские поэтические образцы. Считалось, что женщины, создания более эмоциональные, неизбежно «портили» поэзию излишней чувственностью и снижали ее назида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Поэтому только кисэн с их уникальной свободой самовыражения и маргинальным социальным положением могли заниматься вольным поэтическим творчеством.

Поэзия кисэн была в основном анонимной. Какими бы совершенными и уникальными ни были их стихи, они не могли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убликацию и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Поэтическое дарование кисэн могло высоко цениться мужчинами, которых она развлекала, даже известными поэтами, и приносить некоторые материальные выгоды. Но она не могла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запись своих биографических данных в официальных хрониках, чтобы войти в историю как признанная обществом творческая личность [5, с. 13]. Тем не менее, влияние этих поэтически одаренных натур на лир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и народную культуру было чрезвычайно большим. Их стихи распространялись устно, собирались в частных коллекциях, и позднее, иногда через век и более после смерти поэтессы, попадали в собиравшиеся учеными-поэтами антологии. Однако зачастую авторов и время создания стихов установить

невозможно.

Хван Джини была непревзойденным автором и исполнителем сиджо (часто под аккомпанемент комунго, шестиструнной цитры). Знатоки отмечали ее стихи «за глубину чувств, медитативные ритмы и богатый символизм» [9, р. 92].

Джини, как и другие кисэн, сама влюблялась, но, из-за своего низ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и юрид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не могла рассчитывать не только на замужество, но и на длительную связь с полюбившимся мужчиной. Она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ждать очередного визита возлюбленного, пыталась удерживать его как можно дольше, но знала,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он вернется в свою среду, к своей семье, своим женам. Самое известное и любимое в Корее сиджо Хван Джини повествует о тоскливом одиночестве в долгие зимние ночи и, в тоже время, о радостном ожидании страстной встречи с возлюбленным с приходом весны [4, р. 166].

Середина самой длинной зимней ночи... Часть ее отрежу,
Сложу и положу под одеяло, пахнущее ветерком весенним.
А разверну, когда придет он, чтоб продлить ночь нашей встречи.
(Перевод автора)

Видимо, одним из таких мужчин был известный музыкант Ли Саджон. Они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вместной жизни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лет, но Джини нарушила условия и ушла раньше срока, поняв, что настоящая любовь еще впереди [6].

Хван Джини создавала любовные поэмы несравненной красоты и искренности. Это поэзия торжества чувственной любви, но, в тоже время, специфика отношений кисэн со своими любовниками придает ее стихам привкус сожаления, грусти и горечи. Они пронизаны мыслями о близкой разлуке, и даже надежды на следующие встречи окрашены осознанием временности и случайности любви.

Ах, что я сделала... Ведь разве непонятно было,
Что он остался бы, коль я бы предложила.
Упрямая, дала ему уйти, и вот теперь скучаю.

(Перевод автора)

А вот одно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и любимых корейцами стихотворение Хван Джини, написанное по конкретному случаю для определ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람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Существует большое число переводов этого сиджо. В некоторых делается упор на философское осмысление природы. Так, как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у А. А. Ахматовой, переведившей стихи Хван Джин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му ей подстрочнику [1].

О, синий мой ручей в горах зеленых!
Ты не гордись, что так легко течешь,
Знай, выбраться обратно невозможно
Тому, кто в ширь морскую попадет.
Все горы залиты луною ясной,
Не хочешь ли утешиться, ручей?

В этом сиджо важен ситуативный контекст. «Голубой поток» – это псевдоним Ли Чангона, аристократа королевских кровей, которого Мёнволь (Ясная луна) хотела заманить в свой дом [11]. Хван Джини предлагает ему немного развлечься перед дальней дорогой; молодость слишком коротка, чтобы пренебрегать моментами любви. Она – гора, а он – неизбежно убегающий ручей. В последней строчке Джин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ебя долиной, заполненной лунным светом (женский символ), и предлагает Ли Чангону хотя бы ненадолго остаться с ней, понимая, что больше они никогда не встретятся.

Поток голубой, не спеши понапрасну, сбегая с моей зеленой горы.
Когда ты достигнешь синего моря, уже не вернешься веки назад.
Долина моя залита лунным светом. не надо спешить,
отдохните, и в путь.

Судя по легендам, был только один мужчина, который не поддался очарованию Мёнволь; это – Со Гёндок, у которого о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бучалась тонкостям конфуцианской философии. Джини поначалу восприняла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к себе как вызов, но затем сама попала под действие его моральной стойкости и силы духа [13]. Она назвала его одним из «трех чудес Кэсона»: два других был водопад Пагён и она сама [7]. Видимо Джини без ложной скромности осознавала свое место в истории родного города.

Хотя Хван Джини рано ушла из дома, она в течение жизни много раз возвращалась к родным пейзажам и воспевала их в своих стихах. Одно из них посвящено «второму чуду Кэсона» [1].

Водопад Пагён

Жернов-гора перемалывает поток.
Пыль водяная, мга.
Драконье бучило в сто киль глубиной
кипит и бьется о берега.
Струя ниспадает, а кажется – вспять
востекает Небесной Рекой.
Ярься, извергается в пропасть вода –
радуги белой дуга.
Рокотом града земле водопад
о себе подает весть.
Возносятся россыпи брызг в пустоту –
зерна: яшма и жемчуга.
Странник! Зачем же горе Лушань
одной воздается честь?
В Стране к востоку от моря гора
Жернов Небесный¹⁾ есть.

(Перевод В. Тихомирова)

В конце жизни Джини просила похоронить себя в простой могиле в Кэсоне, на берегу реки. Она хотела уйти так же, как и жила: практично, честно и без церемоний и притворства, которые были нормой в ее время. Так и случилось около 1560 г.

Многие знавшие ее знаменитые люди искренне сожалели о ее кончине. Среди них был и Им Дже, известный писатель и поэт. В одной из своих поездок он посетил могилу Хван Джини и под влиянием нахлынувших чувств написал стихотворение в форме сиджо [4].

Ты спишь под землею, поросшей зеленой травой,
Здесь белые кости твои, красота же исчезла, увы!
Тебя поминаю... Как грустно! Немного вина выливаю на эту
траву. (Перевод автора)

Хван Джини жила и умерла во многом вопреки строгим установкам общества, подавлявшего женскую свободу. Видимо поэтому она стала своеобразным культурным символом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е, а ее личная жизнь нашла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фильмах, телевизионных драмах,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визуальными адаптация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оманов. В 1986 и в 2007 гг. вышли фильмы «Хван Джини» режиссеров Пэ Чханъи и Чхан Юн Хён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азумеется, в них много привнесено вымышленных событий, современных трактовок реалий прошлого и т. п. [10, p. 186]. Но все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объединяет незаурядная личность Хван Джини и ее судьба, хотя и уникальная,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во многом типичная для женщин всех времен и народов. Недаром телесериал «Хван Джини» (выпущен в 2006 г.), судя по социальным сетям, очень много поклон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оссии.

1) Жернов Небесный (Чхонмасан) – название горы возле Кэсона.

Хван Джинх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екрасный пример того, что можно назвать археофеминизмом — исторически ранним публичным проявлением женщиной своего естества и талантов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х в своих целях.

참고문헌

1.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Индии, Китая, Кореи, Вьетнама и Японии. М., 1977.
7.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librebook.ru/klassicheskaia_poezia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2.07.2023).
2. Ланьков А. Н. Кисэн – куртизанки старой Коре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oriental.ru/a/lankov/302.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7.08. 2023).
3. Никитина М.И. Корейская поэзия XVI–XIX вв. в жанре сиджо. СПб, 1994.
4. Classical Korean Poems (Sijo). Transl. by Kim Unsong. Seoul, 1987.
5. Contogenis C. Introduction // Songs of Kisaeng. New York, 1997.
6. Edgin K. Hwang Jini: An Examination of Life as a Joseon Kisaeng.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epublications.marquette.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2&context=dittman>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2.08. 2023).
7. Hwang Chini (황진이)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library.litkorea.or.kr/writer/20039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2.08.2023).
8. Korean Women: View from Inner Room. Ed. by L. Kendall & M. Peterson. New Haven, 1984.
9. Lee P. H.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Nineteenth Centu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1990.
10. Lee P. H. Early Choson Sijo //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Ed. by P. H. Le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1. Theresia M. Gisaeng Life Portrayed on “Blue Stream” Sijo by Hwang Jini.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 https://www.academia.edu/27610577/Gisaeng_Life_Portrayed_on_Blue_Stream_Sijo_by_Hwang_Jini(дата обращения 22.08.2023).
12. Young-Key K.-R. Creative Women of Korea: The Fifteenth through the Twentieth Centuries. Armonk, 2004.

13. 명월 (Хван Джин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кадем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 terms.naver.com/entry.naver?cid=41773&docId=2412057&categoryId=44404](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1773&docId=2412057&categoryId=44404)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09.2023).

Abstract

Hwan Jini: The Story of a Courtesan and her Poems

Smertin Y. G.
(Kuban State University)

The article focuses on the life and works of the famous courtesan, who left a significant trace in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Intimate and landscape lyrics of Hwang Jini occupies a prominent place in Korean poetry of the sixteenth century, and her life became an inspiration for women, challenging traditional norms of morality.

Key words : Hwang Jini, Myeongwol, Kisaeng, Joseon, Poetry, Sijo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Кубани: к истории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Ракачев Вадим Николаевич*

Ракачев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국문 초록

한인 디아스포라는 쿠반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디아스포라 중 하나로, 그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마지막 분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소비에트 이후 공간에서의 활발한 이주와 관련 있다. 논문의 저자들은 역사적 문서를 살펴보면, 쿠반과 그 이전 시기에 고려인의 역사를 추적하여 1930년대 이 지역의 농업 발전에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쿠반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및 발전의 주요 단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변화, 영토 분포 및 현대 문화 조직의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논문에서는 중앙 및 지역 기록 보관소의 문서와 자료가 제시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소개된다.

주제어 : 한인 디아스포라, 쿠반, 이주 과정, 억압, 민족 간 관계, 민족-문화 사회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начала формироваться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 с вхождением в состав государств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ья. Этот период совпал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в Корее, вызвавшим активную миграцию, в том числе на новые россий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 쿠반 국립대 교수, midav.sf@mail.ru

** 쿠반 국립대 조교수, rd_rd@mail.ru

Здесь, честные и трудолюбивые корейцы были незаменимы. Они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других укреплений, снабжали город вод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были помощниками пр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на новом месте семей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Этим был обусловлен и достаточно льготный режим их поселения и закрепл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того периода отмечали, что отношение к корейцам было более лояльным, чем к другим этническим группам, в них видели народ, переселившийся н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в силу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тремящийся закрепиться и интегрироваться в российское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5, с. 69].

Появляются компактные по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ё сарам), а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в Приморье на начало 1920-х гг. составляло 107 тыс. чел. [1, с. 120].

Революционны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коснулись в полной мере и корейцев. Они, уже как полноправные граждане молодого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е, выпуск газет и литературы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языке, созданию своих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ключаются в процесс модернизации – коренного переустройства страны.

С этим был связан и грандиозный советский проект – развития рисосеяния в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В качестве опытной территории была выбрана Кубань – аграрный регион с благоприятным климатом. В рамках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было решено пригласить на Кубань корейцев-рисоводов,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опыт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амбициозной задачи.

Корейские коммуны были основаны в 1933 г. в Славянском районе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края (в 1937 г. эти территории войдут в состав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выделившегося из состава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Данный эксперимент широко освещался в центральных СМИ. В частности, газета «Известия» сообщает нам, что «107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Славянском районе коммуну, получив в распоряжение 230 га земли и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ют опыт рисосеяния на новом месте. Партийные и совет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лавя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да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освоению опыта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ы в обработке риса и считают, что в районе имеются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становки высокоинтенсивного рисосеяния» [9].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переселенцев была на порядок ниж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В архивах сохран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руководства Славянского района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льгот переселенцам-корейцам, как участник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2], но он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не были поддержаны [3].

Несмотря на бытовые и хозяйств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корейские артели активно осваивали кубанские земли, выполняя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рисосеяния. В «Известиях» широко освещался опыт молод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оммуниста Сен Чи-дюна (Сен-Дюн),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рейской артели им. Димитрова Ивановской МТС,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корейцы не только «принесли на кубанские поля корейский опыт рисосеяния и добились крупной победы» [4], но и «колхозный рис начал занимать в артельном севообороте свое место на плавневых землях, дающих низкий урожай всех культур, кроме риса» [6].

Эти процессы стимулирова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тихийный миграционный поток корейцев на Кубань, отношение к которому было неоднозначны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руководители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бы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ривлечени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выращивании не специфической для регио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а с другой – введенный в 1932 г. паспортный режим накладывал серьез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и наказания за регистрацию стихийных мигрантов [15].

Перелом в совет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начинается с 1936 г., когда главной целью становится унификац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вшей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окращение программ «коренизации», ликвид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циональных районов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льсоветов. Часть национальных лидеров и активистов была репрессирована.

Не избежали репрессий и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вшие на Кубани. В 1936 г., по данным приведенным Ж. Г. Сон, из имеющихся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200 корейцев превентивно были обвинены и осуждены 99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ли в ст. Ивановская). 18 декабря 1937 г. в колхозе им. Димитрова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69 человек, из них 59 чел. приговорены в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Арестованные, начиная с 1915 г.р. и моложе, приговаривались к 10-ти годам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14]. В 1937 г. был арестован и ударник-коммунист Сен Чи-дюн, необоснованно обвиненный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японской разведкой и приговоренный к ссылке в Северный край на 5 лет. (24 марта 1958 г. Сен Дюн был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военным трибуналом СКВО) [8, с. 436]. В результате массовых репрессий и депортаций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Кубани в 1930-е гг. практически прекратила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Вновь земли Кубани привлекли внимание корейцев уже в 1960-х гг., после снятия с них ограничения в выезде из мест спецпоселения. Увеличиваетс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За период с 1960 по 1990 г.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Кубани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В 1970 г. здесь проживало 472 корейца, из них 47,3% определи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родной, в 1979 г.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крае составила 632 чел., из них 37,5% определи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родной, в 1989 г. здесь уже проживало 1157 чел.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31,8% из н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читали родным [11].

Следующая волна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регион прибывает в конце 1980-х – начале 1990-х гг. Распад СССР,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кризисы, а также вооруженные конфликты в бывш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ах увеличили

миграционные потоки корей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Кубань. В начале нового столетия около 60% корейских мигрантов прибывали в край из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40% из республик Средней Азии, в основном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По переписи 2002 г.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составляла 3289 чел., а к 2010 г. выросла до 3952 чел., в том числе 42,1% составляли городское население и 57,9% сельское [12].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20 г. зафиксировали сниж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цев в крае – 2811 чел., в том числе 44,3% – городское население и 55,7% – сельское. Соотношение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составило 51,3% к 48,7%. Счит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одным лишь 20,2% корейцев, из них сельских жителей – 63,7%, а городских – 36,3% [7].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е только увеличила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но и успешно интегрировалось в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За время ее 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в регионе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конфликтов корейцев-мигрантов 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Это, по мнению ряда ученых, обусловлено высокой адаптив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живание в России: в Приморье,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е, Кубани – везде корейцы смогли интегрироваться в местную среду, выстроить деловые и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местным населением, занять ря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ниш,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естижных. Наряду с этим корейцы сохранили и продолжают сохраня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привнося в нее новые культурные элементы.

Мы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об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йское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оторая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принятием корейцами многих черт российского/рус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и тот факт, что в самосознании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закрепилос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ебе как о «русских» корейцах – корё сарам. В этой связи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Кубани, сегодня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самобытная, но хорошо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в местное сообщество эт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Корейцы Кубани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науке, искусстве и т. д.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заметно вырос уровень самосо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исходит возр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НКО).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успешно обеспечивают помимо сохранения и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выступают арбитрами в конфликтных ситуаци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фере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стория соз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корейцев Кубани берет свое начало в 1990-х гг. В мае 1991 г. была создана краевая Ассоциац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 время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а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Сегодня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действуют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раснодарская краевая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 А. В. Тегай [10, с. 56].

Мероприятия, реализуемы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ей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т установки на толерантность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Это проявля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в том, что среди членов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немало русских. Корейцы лояльно относятся к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бракам. Русские члены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с интересом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и являются полноправ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ия Кубани поддерживает связи с корей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Ростова-на-Дону, Воронеж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Иркутска, Хабаров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бывших советских республик. Действует корей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Кымгансан», курсы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ольшую роль в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на Кубани сыграло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факульт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права и естествен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ИнЭП» существовавшее с 1992 г. по 2012 г., а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института вошедшее в состав факультета истории, социолог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Куб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3, с. 222].

В заключении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рейцы глубоко и успешно интегрированы в российском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 целом и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в частности. Кроме прочего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 составом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где на основе часты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нтактов сформировалось уважение к другим народам и их культурам. Не последнюю роль сыграла высокая адаптацион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корейцев, обладая которой, они сумели занять свободную в регионе, но привычную для своей культуры нишу в экономике, а также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в корейской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культуры социальн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в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ях.

참고문헌

1. Бугай Н. Ф., Гонов А. М.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юза ССР...». Нальчик, 2003.
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ГАРО). Ф. Р-2608. Оп. 1. Д. 61. Л. 80.
3. ГАРО. Ф. Р-2608. Оп. 1. Д. 61. Л. 46.
4. Головкин С. Опыт корейца Сен Чи-дзюна (Сев риса на кубанский полях) // Известия. 1934. 8 июня.
5. Дятлов В.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меньшинства: фактор стабильности или конфликта? (Китайцы и кавказцы в Иркутске). М., 2000.
6. Известия. 1935. 5 окт.
7. 2023)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20. Том 5.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и владение языками. Таблица 1.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rosstat.gov.ru/vpn/2020/Tom5_Nacionalnyj_sostav_i_vladenie_yazykami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5.10.2023)
8. Книга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о Краснодарскому краю. Краснодар, 2005.
9. Корейская коммуна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 Известия. 1933. 10 окт.
10. Краснодар город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уклет. Краснодар, 2014.
11. Рассчитано по: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0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71;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ладение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7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80;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о данным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на 12 января 1989 года. Краснодар, 1990.
12. Рассчитано по: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владение языками и гражданство.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2 года по Краснодарскому краю. Т. 4. Краснодар, 2005; Всероссийск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2010 г.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demoscope.ru/weekly/ssp/rus_nac_10.php/.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0.2023).

13. Смертин Ю. Г.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Куба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00 лет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раснодар, 18–20 февраля 2020 г. Краснодар: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20.
14. Сон Ж. Г. Советс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от добровольной д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играции (1920–1938)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koryo-saram.ru/sovetskie-rossijskie-korejtsy-ot-dobrovolnoj-do-prinuditelnoj-migratsii-1920-193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6.2022).
15. Центр документаци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ЦДНИРО). Ф. 166. Оп. 1. Д. 14. Л. 5.

Abstract**Korean Diaspora in Kuban:
To the History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Rakachev V. N.(Kuban State University)

Rakachev D. N.(Kuban State University)

The Korean diaspora is one of the youngest in Kuban;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dates back to the last quarter of the 20th century and it is associated with active migration in the post-Soviet space. At the same time, the historical documents identified by the authors make it possible to trace the history of Koreans in the Kuban and in an earlier period, to determine their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he region in the 1930s. The article presents the main stage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diaspora in Kuban, the transformation of i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erritorial distribution, and forms of modern cultural organization. Documents and materials from central and regional archives are presented, a significant part of which is being introduced into scientific circulation for the first time.

Key words: Korean Diaspora, Kuban, Migration Processes, Repression, Interethnic Relations, National-Cultural Societies

Стратегия перевода и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이 아 름*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번역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CAT tool과 기계번역을 활용한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것이다. CAT tool이란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tool의 약자로서 번역사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용어집, 기존 번역 데이터, 번역 품질 체크 등의 기능을 탑재한 번역 작업 도우미 프로그램이다. 포스트에디팅이란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인간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후편집하여 최종 번역문으로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이제 CAT tool상에서 단순 번역이 아닌 포스트에디팅 작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 산업에서 포스트에디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한국어 조합에서는 영어-한국어 조합과 비교하여 아직 한국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번역 시장에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어 포스트에디팅은 향후 러시아어-한국어 번역사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분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번역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포스트에디팅 중심의 번역 작업을 필수 고려 대상이 된다. 러시아어 기계번역을 포스트에디팅할 때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지만 본고에서는 러시아어 동사 상(相)의 번역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처리에 중점을 두겠다. 또한, 이를 고려한 포스트에디팅을 실시하기 위해 CAT tool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캐틀, 러한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러시아어 동사상

* 중앙대학교 강사, ratm531@gmail.com

I. Введение

С развитием технологий в индустрии переводов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которые ранее были немыслимы.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уже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переводческой работы. Особенно в сфере перевода техн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ереводчики не могут выполнять свою работу без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ых навыков. Конечно, возможно выполнять переводческую работу традиционным способом без приобретения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о труд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еимуществ, которые он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од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ей' поним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перевода (CAT-инструмент; computer-aided tool),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т. д. Примеры CAT-инструмента включают Trados, Phrase, MemoQ и т. д. Примеры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включают Google Translate, Papago от Naver, Яндекс Переводчик, Bing Translator от Microsoft, и т. д. При этом эти технологии не используются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а часто в сочетании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пример, возможны такие комбинации, как Trados + Language Weaver (система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Trados), Phrase + Google Translate и другие. С внедрением этих технологий изменился и процесс переводческой работы, причем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м процессом стало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 это ключевой этап при работе с машинным переводом. В данном процесс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бработка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ереводчиком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риемлемого качества. Хотя этот процесс является сравнительно новым, он неотделим от работы с машинным переводом.

CAT-инструмент сам по себе играет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повышени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качества перевода, поэтому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перевод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Однак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ольшинство масштабных перевод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 это проекты перевода в языковой паре английский-корейский, поэтому он не получил широк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паре русский-корейск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арой англо-корейскими переводчиками, многие переводчи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ак правило, не знакомы и не имеют опыт работы с САТ-инструментом. Однако, даже для небольших проекто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АТ-инструмента является большим подспорьем в повышени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качества работы, а в сочетании с машинным переводом эффект несравним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переводческой работой. С этой целью автор в 2018 году внедрила САТ-инструмент на курсе письм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для студент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урс носит название Localization & Post-editing или Translation Technology, большинство выпускников которого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 эту технологию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бы.

В отличие от пары английский-корейский, для пары русский-корейский не так много накопленных данных для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поэтому, вероятно, в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и с парой русский-корейский будет много областей, на которые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и изучить в будущем. В этой статье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иду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ый трудно перевести на корейский, и моменты, которые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при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и.

II. Проблема перевода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отличие от вид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ид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категор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ид глагола выражается через добавление приставок к глаголам, замену суффиксов, прибавление суффиксов, замену корней и изменение ударения. Формируются пары или тройки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но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их значение изменяется, и они становя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и с уникальными значениями.

Тем временем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ид глагола не представлен в вид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категории, что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проблему во время перевода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Рас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е два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ые отличаются только глагольным видом.

(1) Он съел яблоко.

(2) Он ел яблоко.

Оба предложения (1) и (2) 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그는 사과를 먹었다. В переведен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разница между совершенным и несовершенным видами совсем не выражена. Чтобы выразить разницу и уточнить семантику вида глагола, можно добавить наречие 전부(все) или да(все) для (1), или можно к глаголу присоединить -고 있었다(чтобы указать на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происходило в тот момент в прошлом)¹⁾.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ля передачи точного значения при переводе вида глагола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не только лексическую семантику, но и семантику, выраженную в глагольном виде.

Кроме того,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понимания смысла вида глагола является дискурсивно-текстовый контекст. Только поняв и контекст, и лексическую семантику, можно понять, что пытается донести говорящий. Для изучающих L2,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нос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м трудно понять виды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онимать контекст, в котором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т или иной глагол.

(3) Декан вызвал студентов?

(4) Декан вызывал студентов?

1) 박현아(2012)

Предложения (3) и (4), – это случай, когда допускается конкуренция видов. Однак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нтекста приходится выбирать между глаголами совершенного (СВ) и несовершенного (НСВ) вида.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профессор заходит в деканат и видит студентов, ожидающих собеседования, при этом если профессор заранее знал, что декан вызвал студентов, можно выбрать СВ «вызвал», потому что это тот случай, когда ожидаемый результат был достигнут. Если профессор заранее ничего не знал о том, что декан вызвал студентов, естественно НСВ «вызывал» будет выбран. Если выбран глагол «вызвал», то он переводится на корейский как «학장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셨지요?», а в случае «вызывал» оно переводится на корейский как «학장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셨었나요?»²⁾. Если контекст не представле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евод за пределы лекс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невозможен.

В следующей главе мы рассмотрим результаты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и методы их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с учетом вышеуказанных проблем с переводом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III.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данной главе буду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примеры из проведенного анализа. В примерах представлен исходный текс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перевод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фрагмента, выполненный средством комбинации Phrase (CAT-инструмент) + Google Translator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2) 문성원(2000)

Пример 1

<Рис. 1> Текст инструкции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оборудования

Source: ru	Target: ko	
Перед началом эксплуатации машины все операторы должны прочитать инструкцию и убедиться в полном понимании вопросов, касающихся условий эксплуатации и обслужива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는 지침을 읽고 장비의 작동 조건과 유지관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MT

В оригинальном русском текст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глагол СВ «прочитать». Средство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переводил «прочитать» буквально как «читать», а смысл, передаваемый СВ глагола и приставкой «про-» не переведен.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студента: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는 지침을 숙지하고 장비의 작동 조건과 유지관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Студент попытался передать значение СВ, используя слово 숙지(хорошо усвоить). Это была хорошая попытка, но передается значение, отличное от оригинального текста. Совершенный вид «прочитать», в отличие от несовершенного вида «читать», означает «провести какое-либо время за чтением» и «закончить процесс чтения», поэтому данное слово 숙지 лучше подходит для «убедиться в полном понимании вопросов». Принимая это во внимание, автор предлагает следующий вариант.

Предложение: 장비 작동 전 매뉴얼을 잘 읽고, 장비 작동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Здесь просто добавила наречие 잘 перед «читать». Наречие 잘 означает «хорошо», «тщательно» и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поэтому его можно сочетать с глаголом «читать», чтобы выразить значение

«прочитать». Интересно, что для выражения первого глагола СВ «прочитать» было добавлено еще одно слово, а для выражения фразы с вторым глаголом СВ «убедиться в полном понимании вопросов»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только одно слово.

Пример 2

<Рис. 2> Текст доклада о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Source: ru		Target: ko	
21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развивался в мощный регион роста мирового значения, который потребляет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является перекрестком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многих держав мира.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소비하는 동시에 세계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글로벌 중요성을 지닌 강력한 성장 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 MT

В рис. 2 посредством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глагол СВ «развился» переведен на корейский как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발전했습니다. Однако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оворит н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что-то произошло в прошлом, но не говорит н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результаты или последствия на тот момент высказывания.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студента: 최근 몇 년 동안 아태지역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소비하는 동시에 세계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강력한 성장 지역으로 발전해왔다.

В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и студента составил составной глагол, добавив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глагол -해 오다, выражающий ситуацию,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лась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от прошлог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и последствия которой сохраняются и до сих пор. Это выражение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эквивалент английского выражения в настоящем совершенном времени (Present Perfect), и в этом предложении выражение «до сих пор» является триггером (или называется сие в

Janda & Raynolds (2019)), вызывающим этот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глагол.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ная студентом версия вполне приемлема.

Кроме того,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ниже предложенную стратегию. То есть, можно сразу же заменить слово 발전하다(развить) на слово, которое создает ощущение, что оно выросло и все еще оказывает влияние, и отредактировать его как 떠올랐다(подняться) или 부상했다(всплыть). В этом случа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остого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некоторой степени передает, что достигнутый результат сейчас все еще сохраняется. В этом случае,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стоящее совершенное время(?떠올라왔다, ?부상해왔다), поскольку лексическая семантика уже передает оттенок того, что текущая ситуация еще сохраняется.

Предложение: 최근 몇 년 동안 아태지역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소비하는 동시에 세계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강력한 성장 지역으로 떠올랐다/부상했다.

Пример 3

<Рис. 3> Текст интервью

	Source: ru	Target: ko		
38	Когда-я-был-на-заводе-Hyundai,первым, что-я-почувствовал,была «человечность».	현대자동차·공장을·방문했을·때·가장·먼저·느낀·것은·'인간성'이었습니다.	×	MT
39	И-сам-завод,и-работники-двигались·подобно-автомобилю.	공장·자체와·작업자·모두·자동차처럼·움직였습니다.	×	MT
40	Это-было-похоже-на-цветок.	그것은·꽃처럼·보였습니다.	×	MT
41	Корневая-система,как-та,что-проходит-от-головки-цветка-до-самых-его-корней.	뿌리·체계는·꽃의·머리부터·뿌리까지·이어지는·체계와·같습니다.	×	MT
42	И-что-еще-важнее,так-это-гуманность-во-всем.	그리고·더욱·중요한·것은·모든·것에서·인간성입니다.	×	
43	Большой-удачей-было-то,что-мне-удалось-понаблюдать-за-всем-процессом·сборки-автомобиля.	자동차를·조립하는·전과정을·관찰할·수·있어서·큰·성공이었습니다.	×	MT

В рис. 3 представлен пример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текста интервью с человеком, посетившим автомобильный завод Hyundai и делящим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Здесь глагол НСВ «двигались» переводится на корейский в простом прошедшем времени, что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проблемы с передачей общего смысла. Студент, проводящий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также принял эту версию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без какого-либ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что цель текст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яркой передаче того, что он почувствовал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завода в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прошедший прогрессивный аспект (как и прошедшее прогрессивное время в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едложение: 직원 분들이나 공장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자동차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IV. Стратегия для перевода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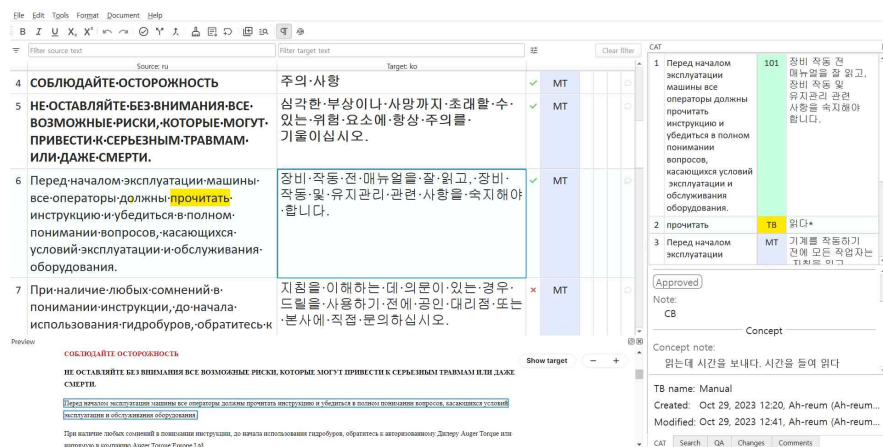
В этой главе автор подведет итоги на основе приведённых выше примеров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го, на что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при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и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переводе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ожно применить метод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речий. Как видно из примера 1, семантику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жно полностью передать, добавив наречие. Поскольку вид глагол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ам по себе не может передать значение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значение можно передать ясно и естественно, добавляя наречия. Также можно применить метод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глаголо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ие выражения, как -ㅆ었-, чтобы указать на исчезновение результата, -ㅆ었지(요), -ㄴ 적이 있-, -분 적이 있-, -해 보았-, чтобы указать на эмпирический факт, и -고 있-, чтобы указать на процесс.

Что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и методы, необходимо сначала понять дискурсивно-текстовый контекст, где используется глагол СВ или НСВ. САТ-инструмент делит текст на сегменты (один сегмент = одно предложение) для удобства переводческой работы, что наоборот мешает понять общий ход и контекст текста. Естественно, переводчик сосредоточится на каждом предложении по-отдельности.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такую ситуацию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функцию Preview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росмотр) САТ-инструмента.

Более того, при построении termbase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ая база) необходимо вводить наречия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глагольные формы вместе. Обычно переводчики склонны ввод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лова один к одному при построении termbase в САТ-инструменте. Однако было бы также полезно разделить СВ и НСВ глагола, ввести их как отдельные элементы вместе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наречиями ил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и с помощью функции аннотации. Если termbase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утем разделения СВ и НСВ, переводчик мож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читывать семантику вида глагола при переводе.

<Рис. 4> Экран САТ-инструмента с информацией о виде глагола, введенном в качестве комментария в termbase



Когда переводчик достигает сегмента с тем предложением из примера 1, появляется пункт `termbase` в окне справа. Появится астериск, указывающий на то, что к глаголу «прочитать» добавлен комментар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еводчик, естественно, может обратиться к информации в аннотации в правой нижней части и применить ее к переводу. Более того, в нижней части экрана появляется ок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просмотра,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проверить образ исходного или переведенного текста,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выполнению перевода без потери общего контекста.

V. Заключение

Для нос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ыучить глаголы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чень сложно. В процессе перевода, естественно, возникают трудности. Точно понять семантику видов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ложно, но даже если его понять, то и выразить его по-корейски сложно. Поэтому,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некоторые трудности при переводе вида глаголов, автор предлаг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упомянутые выше стратегии.

Однако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наречий ил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глаголов может быть трудно реализовать на практике, даже если переводчик знает о них.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ереводчики без большого опыта часто колеблются, опасаясь добавить в перевод слова, которых нет в исходном тексте. Однако эту проблему можно решить за счет обучения и опыта, 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должно быть предусмотре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АТ-инструмента.

В этой статье рассмотрена стратегия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на перевод на виды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о автор считает, что можно исследовать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переводом, применяя ту же методологию. Более того, автор планирует в будущем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той же стратегии в обратном порядке для перевода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усский.

참고문헌

1. 문성원. 「소위 러시아어동사의 '상의' 경합에 관하여」, 『슬라브학보린책들』, 15(1), 65-95, 2000.
2. 박현아. 「한국어 화자의 러시아어 일반사실적 불완료상 습득」,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2.11 (2012): 109-137.
3. Андраханов А. “Особенности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текстов военной тематики с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дипломная работа специалист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подготовки: 45.05.01-Перевод и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2023.
4. Бок, Ли Вон & Петрухина. Е. “К вопросу об изучении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в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Язык, сознание, коммуникация. Сб.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I*, 1998.
5. Зализняк А. & Шмелёв А. “Введение в русскую аспектологию”, *Litres*, 2022.
6. Janda L., and Antonio Fábregas. “Seeing from without, seeing from within: Aspectual differences between Spanish and Russian”, *Cognitive Linguistics* 30.4, 687-718, 2019.
7. Janda L., and Robert J. Reynolds. “Construal vs. redundancy: Russian aspect in context”, *Cognitive Linguistics* 30.3, 467-497, 2019.
8. Sonnenhauser B., et al. “Towards machine translation of Russian aspect”, 243-252, 2014.
9. Zangenfeind R., Barbara Sonnenhauser B. and Selegej V. “Russian verbal aspect and machine translation”, 743-752, 2014.

Abstract

Strategy for Translation and Post-editing Russian Verb Aspect

Lee, Ah Reum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use of CAT tools and post-editing with machine translation, both of which are integral to contemporary translation practices. A CAT tool, short for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tool, is a translation assistant program equipped with functions such as terminology management, existing translation data, and translation quality checks, aiding translators in the translation process. Post-editing is the process of human editors refining machine translation output to a level acceptable for human consumption, resulting in a final translated text.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ost-editing tasks rather than traditional translation tasks within CAT tools.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post-editing in the translation industry, its use in the Russian-Korean combination is not yet widespread in the Korean market compared to the English-Korean combination. However, as its significance in the translation market continues to rise, post-editing will become an inevitable field even for Russian-Korean translators in the future. Therefore, for those considering translation as a profession, post-editing tasks should be a crucial consideration. While there are many aspects to consider when post-editing Russian machine translation, this paper focuses on post-editing processing for the translation of Russian verb aspect. Additionally, it proposes effectively utilizing various functions of CAT tools to carry out post-editing.

Key words: CAT tool, Russian-Korean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Russian Verb Aspect

러시아어 인과접속사에 관한 연구

이 주 홍*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Pander & Degand, Sweetser, Verhagen의 인과접속사에 대한 연구들을 러시아어의 인과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이 사용되는 용례들에 적용해 봄으로, 이들이 사용되는 맥락과 사용동기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문장에서의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러시아어 인과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더 많은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так как는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정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고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는 이러한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전자는 추론적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고 후자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어 인과 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의 쓰임이 발화상황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참여도에 따라 용법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제어 : 러시아어, 인과 접속사, 화자 참여도, 인지 협동, 코퍼스 분석

I. 서론

러시아어의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는 표면적으로는 모두, 앞에 나오는 절에 의해 뒤에 나오는 절이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인과관계 접속이라는,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세계에서의 객관적인

* 성균관 대학교 강사, moscow16@naver.com

인과관계가 아니라 화자의 추론에 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에서는 접속사 **итак**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가 사용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즉, 위의 접속사들이 겉으로 보아서는 모두 인과관계 접속사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장에 따라서 어떠한 접속사는 사용이 더 자연스럽고 어떠한 접속사는 사용이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1) Свет не горит в соседнем окне. Итак, никого нет дома.

(이웃집 창문에 불이 꺼져있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예문2) ?Свет не горит в соседнем окне,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никого нет дома.

(이웃집 창문에 불이 꺼져있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어의 **потому что, так как**는 표면적으로는 모두 뒤에 나오는 절이 앞에 나오는 절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역시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처럼 보인다. 러시아어 문법서¹⁾에서도 다음과 같이 접속사들의 통사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놓고 있지만, 의미적 차이는 명백하게 구분해 놓지 않고 있다.

Средства выражения	Примеры	Комментарии
потому что	Только не думайте, что я поступила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илище,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туда пошли подруги. Я пришёл на завод,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работает отец.	Не может стоять в начале предложения. Эт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в диа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так как	Александр не поступил в институт, так как ему не хватило двух баллов. (Имеет книжный оттенок.)	Может стоять в начале предложения.

1) Русский язык Курсы(1998), 『Русский язык синтаксис』, pp. 97-101.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앞에 나오는 절이 뒤에 나오는 절의 내용에 의한 추론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예문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потому что보다 так как가 더 자연스럽다.

(예문4) Виктор любил Анну, так как он вернулся к ней.

(빅토르는 안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예문5) ?Виктор любил Анну, так как он вернулся к ней.

(빅토르는 안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러시아어의 인과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과 так как, потому что의 쓰임이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내는데 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절에 의해 뒤에 나오는 절이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인과접속사의 쓰임의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가 네덜란드어의 인과관계 접속사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연구를 바탕으로,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인과관계 접속사들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이들의 주장이 러시아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뒤에 나오는 절이 앞에 나오는 절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인과접속사 потому что, так как의 쓰임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해, 먼저 Sweetser가 제시한 내용접속, 인지.추론접속, 화행접속의 구분이 러시아어의 인과접속사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러한 구분의 한계를 제시한 후, Verhagen의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두 접속사의 쓰임의 차이를 밝혀볼 것이다.

II. 본론

II.1. 순차 인과관계(forward causality)

II.1.1.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 의 연구

순차 인과관계(forward causality)는, 우리말의 ‘비가 와서 운동장이 젖었다.’에서처럼 앞에 나오는 절에 의해 뒤에 나오는 절이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2001)은 영어와 네덜란드어의 순차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을 가지고 이들 각각의 용법에 대해 연구²⁾한 바 있다.

순차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들 중에서, 영어의 *as a result*와 네덜란드어의 *daardoor*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 내용만을 연결시킬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예문6), 화행적 용법이나 화자의 추론에 의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인과관계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예문7,8).

(예문6) a. The sun came up. As a result, the temperature went up.

b. De zon kwam op. Daardoor steeg de temperatuur.

(예문7) a. You have been very impolite. So / *As a result leave the room immediately!

b. Je bent erg onbeleefd geweest. Dus / *daardoor verlaat de kamer onmiddellijk!

(예문8) a. The snow is melting, so / *as a result the temperature is above zero.

b. De sneeuw smelt, dus / *daardoor de temperatuur ligt boven nul.

반면에, 영어의 *so*와 네덜란드어의 *dus*는 위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행적 용법이나 화자의 추론에 의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인과관계에서는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다음의 (예문9)에서처럼 행위자의 의지가 들어간 인과관계(volitional causality)를 표현하는 곳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예문10)에서 보듯이 객관적 내용을 연결시킬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예문9) a. I felt tired, so I left.

b. Ik was moe, dus ik ging weg.

2)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2001), “Scaling causal relations and connectives in terms of speaker involvement”, *Cognitive Linguistics* 12-3, 211-245.

- (예문10) a. There was a strong wind, *so three tiles fell off the roof.
b. Er stond een harde harde wind, *dus er zijn drie pannen van het dak gevallen.

마지막으로, 영어의 *that's why*와 네덜란드어의 *daarom*은 다음의 (예문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행적 용법이나 화자의 추론에 의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인과관계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예문12)에서처럼 화자의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이 존재하거나 화자의 추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예문11) a. You have been very impolite.
*That's why leave the room immediately!
The snow is melting.
*That's why the temperature is above zero.
b. Je bent erg onbeleefd geweest.
*Daarom verlaat de kamer onmiddelijk!
De sneeuw smelt.
*Daarom ligt de temperatuur.

- (예문12) a. You have been very impolite.
That's why I demand that you leave the room immediately!
The snow is melting.
That's why I think the temperature is above zero.
b. Je bent erg onbeleefd geweest.
Daarom vraag ik je de kamer onmiddelijk te verlaten!
De sneeuw smelt.
Daarom denk ik dat de temperatuur boven nul ligt.

이제까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속사들의 차이를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나 내부적 표현과 외부적 표현 등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분류시키

려 시도한 바 있지만,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화자의 참여도(Speaker Involvement)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화자의 참여도는 현재 말하는 화자가 인과관계에 얼마나 드러나게 참여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들은 이 화자의 참여도의 정도를 가지고 인과관계의 유형을 나누어 이에 따라서 접속사의 사용이 달라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화자의 참여도가 가장 적은 인과관계의 첫 번째 유형은 의지를 지닌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nonvolitional causal relations)이며, 이는 전적으로 객관적인 현상이 서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이다. 여기서 화자는 단지 사건의 전달자(reporter)역할만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문13) The sun came up. As a result, the temperature went up.

다음으로 이보다 조금 더 화자가 관여되는 인과관계는 의지를 지닌 행위자가 존재하는 인과관계(volitional causal relations)이다. 이는 다음의 (예문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위자가 존재하고 그의 행위가 앞서 제시된 원인과 연결되는 경우이다.

(예문14) The guests were boring. She/I left the party early.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행위의 결과는 실제 세계의 인과관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행위자의 의식과 더욱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에는 이를 전달하는 화자가 함축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즉, 화자가 생각하는 인과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앞에 제시한 인과관계에 비해 조금 더 화자의 참여도가 많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보다 조금 더 화자가 관여되는 인과관계는 인과를 기반으로 한 인지적 관계(causality-based epistemic relations)이다. 이 관계에서 인과관계의 결과는, 다음의 (예문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세계의 사건이 아니라 문장에 나타난 행위자(protagonist)또는 결론자의 인지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는 화자가 이러한 인지상태를 받아들여 인과관계를 표현해

야 하므로, 의지를 지닌 행위자가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비해 화자의 참여도가 낮게 된다.

(예문15) It had rained continuously for two days. The tennis court will probably be unplayable.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위의 예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실제세계의 일반적인 인과관계와 강하게 연관되므로, 다음의 비인과적 인지관계(noncausal epistemic relations)와 비교했을 때 이보다 화자의 참여도가 좀 덜하다. 비인과적 인지관계는, 아래 (예문1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실제세계의 인과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과관계이며, 오직 화자의 인식상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예문16) It's 10 o'clock. Everyone has probably left for work.

마지막으로, 화행관계(speech-act relations)이다. 이제까지는 발화상황 밖에 있는 외부세계를 인과관계로 개념화시키는 방법이었다면, 화행관계에서는 현재 발화상황 밖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 화자는 다음의 (예문17)에서와 같이 곧 행위자가 된다.

(예문17) There is a good movie on. Did you already have plans for tonight?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과관계의 순으로 화자의 참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며, 각 언어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화자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 접속사는 화자참여도의 정도의 연속선(speaker involvement scale)에 각각 구분되어 위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은 네덜란드어의 대표적인 인과접속사 *dus*, *daarom*, *daardoor*를 선택하여 신문사료에서 50개의 문장을 뽑아 화자참여도의 정도와 접속사들의 관계를 분류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의 (표1)과 같았는데, 이에 따르면 각각의 인과접속사는 *daardoor*, *daarom*, *dus*의 순서로 화자 참여도의 정도가 적은 순서대로 그 정도의 연속성 위에서 그 쓰임이 차례로 구분되고 있다.

(표1)

Relation	connective					
	dus	(%)	daarom	(%)	daardoor	(%)
Nonvolitional causal	—	—	1	2	50	100
Volitional causal	6	12	26	52	—	—
Causal epistemic	21	42	18	36	—	—
Noncausal epistemic	19	36	5	10	—	—
Speech-act	4	8	—	—	—	—
Total	50	100	50	100	50	100

또한 이 표에 따르면 *dus*와 *daardoor*는, 의지를 지닌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nonvolitional causal relations)와 의지를 지닌 행위자가 존재하는 인과관계(volitional causal relations)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aarom*은 비인과적 인식관계(noncausal epistemic relations)와 화행관계(speech-act relations)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임이 이 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는 네덜란드어의 인과관계 접속사의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언어든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들이 말한 바대로 이것이 어느 나라 언어든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러시아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야할 것이다.

II.1.2. 러시아어에의 적용

러시아어의 경우, 순차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사는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 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по этой причине는 다음의 (예문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과관계(nonvolitional causal relations)를 이어주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으나, 서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예문19)의 경우처럼 인식관계(epistemic relations)를 이어줄 때는 이 접속사가 사용되면 문장이 다소 어색해 진다. 이것으로 보아 по этой причине는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가 제시한 개념인 화자 참여도의 정도가 높지 않을 때 선호되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다.

(예문18) Superv является нишевым автомобилем,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родажи новой модели хоть и возрастут, но достаточно незначительно.

(Superv는 틈새시장용 자동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모델의 판매량은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 늘어남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예문19) ?Свет не горит в соседнем окне,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никого нет дома.

(이웃집 창문에 불이 꺼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반면, итак은 다음의 (예문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행관계(speech-act relations)를 연결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예문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과관계(nonvolitional causal relations)를 이어주는 경우에 이 접속사가 사용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итак은 по этой причине와는 다르게 화자의 참여도가 높을 때 선호되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다.

(예문20) Ты слышном громко разговариваешь. Итак, уходи!

(넌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가!)

(예문21) *Дул страшный ветер. Итак, окно разбилось.

(무서운 바람이 불었다. 그 결과로, 창문이 깨져버렸다.)

이상의 예들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어에서도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인과접속사의 사용이 구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예문을 통해 살펴본 по этой причине와 итак을 포함해서 앞에서 제시한 러시아어에 존재하는 4가지의 접속사들(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이 모두 이와 같이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그 사용이 구분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가 네덜란드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 신문자료에 나타나는 인과관계 접속사가 들어있는 구문들을 한 인과접속사당 각 50개를 추출³⁾하였다. 그 후에 이들을 인과관계 유형에 따라서 분류한 뒤 각 유형당 구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먼저, 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의 경우, 선택된 50개의 구문들 중에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nonvolitional)가 31개, 행위자의 의지가 들어 있는 인과관계(volitional)가 8개,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가 11개 나타났고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적은 순으로 배열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2)와 같으며, 나타난 구문들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2)

Relation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
Nonvolitional	31	62
Volitional	8	16
Epistemic	11	22
Speech-act	0	0
Total	50	100

3) 자료는 <http://www.ruscorpora.ru> 에서 영역을 газетный로 설정한 후 각각의 접속사 조건을 집어넣고 50개의 문장을 뽑은 후에, 그 문장의 인과관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유형별 구문의 숫자를 세는 방법을 택했다.

(예문22) Слишком мощные реки, слишком густые леса, слишком большие просторы и слишком много денег надо для созда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экосистемам в большой мере удалось уцелеть.

(너무나 강한 지류, 너무 깊은 숲들, 너무 넓은 광야가 있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생태계가 대부분 파괴되지 않았다.)

위의 (예문22)에서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접속사 이전 절에 표현된 상황과 접속사 이후의 절에 표현된 상황이 실제세계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문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 유형(nonvolitional)으로 분류했다.

(예문23) Абдалла почти никогда не общается с репортерами, и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оба лидера договорились опусти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для таких радеву совместную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압달라는 리포터들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두 정상은, 이러한 만남에는 전통적인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할 것에 합의했다.)

위의 (예문23)에서는, 두 정상이라는 행위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특정한 이유로 합의라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러한 구문은 행위자가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형(volitional)으로 분류했다.

(예문24) Эксперты констатируют, что «зеленые» автомобили с традиционным силовыми установками не менее экономичны в расходе топлива, чем гибриды, но их стоимость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как прогнозируют аналитики, продажи машин с гибридными агрегатами на европейских рынках могут пойти на убыль.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엔진설비를 갖춘 ‘녹색’ 자동차들이 연료소비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덜 경제적이지도 않지만 가격은 크게 낮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분석가들이 말한 바대로, 하이브리드

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의 유럽시장에서의 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문24)에서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접속사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접속사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인과적 인식관계(epistemic)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접속사 *поэтому*의 경우, 선택된 50개의 구문들 중에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nonvolitional)가 19개, 행위자의 의지가 들어가는 인과관계(volitional)가 14개,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가 16개 나타났고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는 1개만 나타났다. 이를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적은 순으로 배열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3)과 같으며, 나타난 구문들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

Relation	<i>поэтому</i>	(%)
Nonvolitional	19	38
Volitional	14	28
Epistemic	16	32
Speech-act	1	2
Total	50	100

(예문25) *Спрос на квартиры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 поэтому цена не снижается.*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높다. 따라서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

위의 (예문25)에서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접속사 이전 절에 표현된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상황과 접속사 이후의 절에 표현된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 실제세계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문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 유형(nonvolitional)으로 분류했다.

(예문26) Они не сидят в кустах, прямо заявляют о своей позиции. Это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Поэтому, не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ую разность в наших взглядах, я их уважаю.

(그들은 그냥 덤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대해 말합니다. 그게 저한테 무척 마음에 들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 관점의 몇몇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위의 (예문26)에서는 ‘나’라는 행위자가 드러나 있고, 예문에서 행위자인 ‘나’는 앞에 나온 특정한 이유로 ‘존경’이라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러한 구문은 행위자가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형(volitional)으로 분류했다.

(예문27) Просто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был больше, чем президент, он был царь. Медведев стал президентом, но он не стал полноправным царем. Поэтому весь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Путин царем быть не перестанет.

(단지 블리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푸틴은 대통령 이상이며 그는 황제였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완전한 통치권을 지닌 황제는 못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모든 전환기 동안 푸틴은 황제가 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예문27)에서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접속사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접속사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의 인식에 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 유형으로 분류했다.

(예문28) Я стараюсь не врать государству, поэтому пускай оно мне тоже не врет.

(나는 국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국가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위의 (예문28)에서는, 인과 접속사 이전에 나오는 문장이 пускай로 비롯되는 명령형, 즉 화행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поэтому 접속사가 사용된 전체 50개의 구문 중에서 위의 (예문28)의 오직 한 가지 경우만 존재했고, 위의 (예문28)의 경우는 형태적으로는 명령문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발화행위 인과관계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의미적으로는 인과관계의 연결이 화자의 인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식적 인과관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접속사 так что의 경우, 선택된 50개의 구문들 중에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nonvolitional)가 14개, 행위자의 의지가 들어가는 인과관계(volitional)가 4개,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가 29개 나타났고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는 3개 나타났다. 이를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적은 순으로 배열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4)과 같으며, 나타난 구문들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4)

Relation	так что	(%)
Nonvolitional	14	28
Volitional	4	8
Epistemic	29	58
Speech-act	3	6
Total	50	100

(예문29) В 2006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ША включило домик Фила в список особо це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отенциальных целей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так. Так что Фил теперь под охраной государства.

(2006년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필의 집을 테러행위의 잠재적 목표가 될 수 있는 특별 보호대상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필은 지금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위의 (예문29)에서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접속사 이전 절에 표현된 국토안보부가 특별 보호대상 목록에 필의 집을 포함시킨 상황과 접속사 이후의 절에 표현된 필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실제세계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문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 유형(nonvolitional)으로 분류했다.

(예문30) Взрослую собаку переучить трудно, так что этолог рекомендует хозяевам избегать ситуаций,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у собаки агрессию.

(성견은 재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행동학자는 주인들에게 개들의 공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권고한다.)

위의 (예문30)에서는, ‘권고’라는 행위를 하는 ‘동물학자’라는 행위주가 존재하고 ‘권고’하는 행위의 이유가 접속사 이전 절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행위자가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형(volitional)으로 분류했다.

(예문31) После смерти Патаркацишвили оппозиция стала умнее. Теперь она понимает, что борется с властью, которая не имеет ничего общего ни с демократией, ни со свободой. Так что смерть Патаркацишвили нынешней грузинской власти ещё аукнется.

(파타르카치쉬빌리의 죽음 이후에 야당은 더 지혜로워졌다. 이제 야당은, 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전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 않은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그루지아 세력인 파타르 카취쉬빌리의 죽음은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문31)에서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접속사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파타르카치쉬빌리의 죽음 이후에 야당이 변화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그 죽음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결론을 화자가 인과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 유형으로 분류했다.

(예문32) К тому же, нельзя не признать — она гораздо симпатичнее, чем самая известная в истории практиканта из Белого Дома. А это на Западе ценят. Так что, давайте не будем жалеть Наталью Морарь.

(게다가, 그녀가 백악관의 견습생 역사 속 가장 유명한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서구에서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탈리아 모라르를 동정하지 맙시다.)

위의 (예문32)에서는, 인과 접속사 이전에 나오는 문장이 ‘давайте не будем’으로 비롯되는 동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화자의 청유, 즉 화행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접속사 **итак**의 경우, 선택된 50개의 구문⁴⁾들 중에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nonvolitional)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행위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인과관계(volitional)가 5개,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가 39개 나타났고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는 6개로 나타났다. 이를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적은 순으로 배열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5)과 같으며, 나타난 구문들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5)

Relation	итак	(%)
Nonvolitional	0	0
Volitional	5	10
Epistemic	39	78
Speech-act	6	12
Total	50	100

4) 선택된 50개의 구문들 중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단지 발화를 시작하는 역할을 하거나 발화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소사의 **итак**은 제외되어 있다. Ех. И так, краткое содержание предыдущих серий: ... (자, 이전 시리즈의 짧은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문33) Страна готова пойти на любые жертвы, чтоб сдержать инфляцию. Итак, пару недель назад безо всяк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намеков глава Федеральной резервной системы(ФРС) США Бен Бернанке понизил учетную ставку ФРС на 75 базисных пунктов – с 4,25% до 3,5%.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몇 주 전에 어떠한 사전 암시 없이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회장 벤 버냉키는 75 기준점에 대한 할인율을 4.25%에서 3.5%까지 낮추었다.)

위의 (예문33)에서는 할인율을 낮추는 행위를 하는 행위주가 존재하고, 국가가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행위에 대한 이유가 접속사 이전 절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문은 행위자가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형(volitional)으로 분류했다.

(예문34) Как только принесенная домой рыба оттаяла, по кухне пошёл отвратительный душок. Итак, надо знать, на что смотреть при покупке.

(집으로 가져온 생선을 해동시키자마자, 부엌을 따라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위의 (예문34)에서는, 생선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야 그것이 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건을 바탕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앞으로 해야되는 일, 즉 물건을 살 때 조심해야하는 것을 화자가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문은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 유형으로 분류했다.

(예문35) Человек, первым составившим самое сложное слово, получит приз – 1 тысячу рублей. ИТАК, ИГРАТЬ!

(처음으로 가장 복잡한 단어를 구성한 사람은 천 루블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합시다!)

위의 (예문35)에서는 인과 접속사 이전에 나오는 상금을 타게 될 것이 원인이 되어 게임을 할 것을 청유하는 행위가 성립이 되므로, 이러한 구문은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로 분류했다.

이제까지 살펴본 4가지 접속사의 각 유형별 개수를 모두 정리해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면 다음의 (도표6)과 같다.

(도표6)

Relation	connective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	поэтому	(%)	так что	(%)	итак	(%)
Nonvolitional	31	62	19	38	14	28	0	0
Volitional	8	16	14	28	4	8	5	10
Epistemic	11	22	16	32	29	58	39	78
Speech-act	0	0	1	2	3	6	6	12
Total	50	100	50	100	50	100	50	100

이 표에 제시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어의 순차 인과관계 접속사는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의 순서로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적은 순서대로 그 정도의 연속성에 의해서 차례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по этой причине는 화자 참여도가 가장 많은,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act causal relations)를 연결할 때는 사용되지 않으며 итак은 화자 참여도가 가장 적은 의지를 지닌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nonvolitional causal relations)를 연결할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 5) 접속사 **итак**이 들어있는 문장들 중에는 “Хотя природный газ посл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и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экологически приемлемой альтернативой,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силь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доли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стет и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импорта. **Итак, откуда же брать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в будущем? Ответа на этот вопрос нет.**(천연가스는 재생산 에너지원 이후에 가장 환경적으로 용납되는 대체에너지원이지만, 사용이 많아지면 수입 의존도도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미래 전기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다.)” 이와 같이 의문문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발화행위 인과관계(speech act)로 분류해야 할 것 같은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의미상으로 이러한 질문은 수사의문문으로 앞에 나온 원인들을 통한 화자의 관점 및 결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구문들은 비록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인식적 인과관계(epistemic)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자 참여도에 따라 순차 인과관계 접속사의 사용이 구분되어지는 현상이 어느 나라 언어든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통사론이나 의미론에 바탕을 둔 문법서들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러시아어의 4가지 순차 인과접속사들의 다양한 화용론적 사용 용법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2. 역순 인과관계(backward causality)

II.2.1. Eve E. Sweetser의 연구

역순 인과관계(backward causality)는 뒤에 나오는 절에 의해 앞에 나오는 절이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영어에는 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Sweetser는 그중에서 because와 since가 다음의 예에서처럼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⁶⁾.

(예문36) She went, because she left her book in the movie theater last night.

(해석1: 그녀는 지난밤 극장에 책을 놓고 갔기 때문에 떠났다.)

(해석2: 그녀가 지난밤 극장에 책을 놓고 갔기에 그녀는 떠났을 것이다.)

위의 문장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지난밤에 그녀가 극장에 책을 놓고 와서 그 이유로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단언하는 문장으로 이해(content-conjunction reading, 해석1)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녀가 떠난 이유가 그녀가 가방을 극장에 놓고 갔기 때문이라고 화자가 추론을 하는 문장으로 이해(epistemic-conjunction reading, 해석2)될 수도 있다.

기존의 의미론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접근한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어휘적 다의성(lexical polysemy)으로 설명하려 하겠지만, Sweetser는 이를 다의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다의성으로 접근한다면, 하나의

6) Sweetser, Eve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6-112.

형태소가 다양한 의미값(semantic value)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위의 예문에서 because는 실제 세계의 인과관계를 내용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되든 화자의 추론으로 이해되든 모두 ‘인과관계’라는 공통적인 의미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weetser는 어휘적 다의성 대신에 화용론적 중의성(pragmatic ambiguity)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를 설명한다.

화용론적 중의성은 Horn(1985)⁷⁾이 제시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예문37, 38)의 경우, 두 문장은 모두 ‘부정’이라는 하나의 의미값을 지니고 있지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어 not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예문37) She's not happy, she's sad.

(예문38) She's not happy, she's ecstatic.

위 (예문37)의 경우에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happy’의 내용을 부정하는 기능으로 부정어 not이 사용되었지만, (예문38)의 경우에는 절 전체의 단언적(assertability)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으로 not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두 예문에서 부정의 not의 의미는 어휘적으로 다의적이지 아니라 화용론적으로 중의적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weetser에 따르면, 영어의 역순 인과관계 의미를 지니는 접속사 because와 since는 화용론적 중의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과관계’라는 공통적인 의미값을 지니고 있더라도 다음 예문들에서 보이는 바대로 내용접속(content-conjunction), 인식.추론 접속(epistemic-conjunction), 화행접속(speech-act-conjunction)의 세 가지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문39a) John came back because he loved her.

(존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왔다.)

(예문39b) Since John wasn't there, we decided to leave a note for him.

(존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메모를 남기기로 했다.)

7) Horn, Laurence R, 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1, pp. 121-174.

(예문40a) John loved her, because he came back.

(존이 돌아왔기에 존은 그녀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문40b) Since John isn't here, he has (evidently) gone home.

존이 여기에 없기에, 그는 아마도 집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예문41a) What are you doing tonight, because there's a good movie on.

(오늘 저녁에 뭐하니, 왜냐하면 좋은 영화가 하거든.)

(예문41b) Since you're so smart, when was George Washington born? (니가 똑똑하니까 묻는건데, 조지 워싱턴이 언제 태어났지?)

위의 (예문39a)에서 John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돌아온 것의 현실적인, 즉 실제 세계에서의 객관적인 이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위의 (예문39b)에서 John의 부재는 실제세계에서 메모를 남기려는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인과접속사의 기능이 내용접속 기능이다.

다음으로, 위의 (예문40a)에서는 John이 그녀를 사랑한 것과 그가 돌아온 것이 실제 세계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해석을 통한 화자의 추론이 John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의 (예문40b)에서는 John의 부재에 대한 지식이 그가 집으로 가버렸다는 추론적 결론에 대한 원인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인과접속사의 기능이 인식.추론 접속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예문41a)에서 접속사로 연결된 종속절은 의문문으로 제시된 화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41b)에서 상대방이 똑똑하다는 사실은 화자가 질문을 제시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질문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인과접속사의 기능이 화행접속기능이다. Sweetser는 이러한 기능들로 표현되는 올바른 해석을 선택하는 것은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용론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II.2.2. 러시아어에의 적용

Sweetser는 영어의 인과접속사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지만, 러시아어의 경우에도 인과관계의 의미를 지니고 동일한 형태의 접속사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어 화용론적 중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문들이 존재한다.

(예문42) Этот вариант невозможен, так как цена на газ растёт быстрее цен на транзит.

(이 안건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스의 가격이 운송비 보다 더 오르기 때문이다.)

(예문43) Виктор любил Анну, так как он вернулся к ней.

(빅토르가 안나에게 돌아왔기에, 그가 그녀를 사랑했을 것이다.)

위의 (예문42)와 (예문43)은 모두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так как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쓰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먼저 (예문42)의 경우, 가스를 운반하는 비용이 오르는 것은 안건이 불가능한 것의 실제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는 내용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예문43)의 경우, Виктор가 Анна를 사랑한 결과 Виктор가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 실제세계에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화자의 인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적 인과관계이다. 이 경우는 인식.추론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의미를 지닌 또 다른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의 경우에도, 다음의 (예문44), (예문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동일한 형태의 접속사가 서로 다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문44) Он хорошо сдал экзамены, потому что он много занимался.

(그는 시험을 잘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예문45) Уходи из аудитории! Потому что ты слышном громко разговариваешь.

(강의실에서 나가! 넌 너무 크게 떠들고 있어.)

위의 (예문44)의 경우, 그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그가 시험을 잘 본 것의 실제적인 이유가 되므로 이 예문에서의 인과접속사 *потому что*는 내용접속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예문45)의 경우, 인과접속사 이후에 나오는 절의 내용이 화자가 강의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화행의 원인이 되므로 여기에 쓰인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는 화행접속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러시아어의 모든 예들에 따르면, Sweetser가 영어의 예문을 통해 밝혀낸 인과관계 접속사가 화용론적 중의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러시아어의 인과관계 접속사에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인과접속사 *because*와 *since*에 내용접속, 인지·추론 접속, 화행접속의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지만 러시아어에는 흥미롭게도 한 인과접속사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아래 두 예문들에서 보듯이 화자의 인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적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기능으로 접속사 *так как*는 사용될 수 있지만(예문46),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가 사용될 경우에는 문장이 어색해진다(예문47).

(예문46) Виктор любил Анну, так как он вернулся к ней.

(빅토르가 안나에게 돌아왔기에, 빅토르는 안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문47) ?Виктор любил Анну, потому что он вернулся к ней.

(빅토르가 안나에게 돌아왔기에, 빅토르는 안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Sweetser의 연구는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과접속사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이들의 쓰임이 화용론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의 인과접속사에도 적용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연구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러시아어의 인과접속사 *так как*와 *потому что*가 어떠한 이유로 기능적으로 나누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즉 동일한 인과관계라는 의미를 지니는 러시아어의 역순 인과관계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와 *так как*가,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기능적으로 하나는

인지.추론적 접속기능보다 내용접속 기능에 주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추론적 접속기능으로 쓰이고 있다면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이를 구분해줄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 Sweetser는 이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Verhagen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식.추론적 접속기능을 지닌 인과접속사의 의미구조를 인지협동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 의거한다면 러시아어의 인과접속사 *так как*와 *потому что*의 기능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3. Verhagen의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 역순 인과접속사

기존의 의미론에서는 언어에 있어서 의미는 고정된 것이고, 언어는 실제 세계와 언어 기호 사이의 연결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인간 언어의 기능은 실제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주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 언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바로 이중부정이다. ‘It is not impossible’ 과 ‘It is possible’은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만약, 언어의 주된 기능이 실제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라면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개의 표현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Verhagen은 이렇게 기존의 의미론, 통사론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일반적인 관점으로 상호주관적 인지협동 모델을 사용해서 설명하려 했다.

인간의 언어활동에는 인지되는 대상과 인지된 것을 개념화하는 주체가 존재하는데, 인지된 것을 개념화하는 이 주체에 의해 언어가 실현되는 과정을 Traugott(1995)⁸⁾, Langacker(1990)⁹⁾ 등의 언어학자들은 ‘주관성(subjectific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인간의 언

8) Traugott(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sation”, *Stein and Wright*(eds.), pp. 3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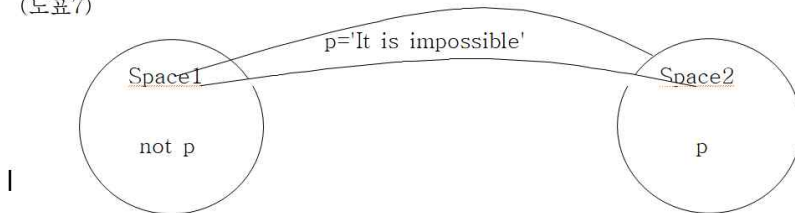
9) Langacker, Roland W.(1990),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1, pp. 5-38.

어소통에는 발화자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가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언어소통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개념화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의 관계를 고려한 개념이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개념인 것이다. Verhagen에 따르면¹⁰⁾, 인간의 언어활동에 참여하는 각각의 개념화의 주체들은 단지 자신이 본 관점만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화 주체(주로 청자)의 관점도 취하면서 이들의 반응을 유도하기도 하며 서로 협동을 통해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상호주관적 인지협동 모델이다. 이를 통해서 Verhagen은 앞서 제시한 기존의 의미론, 통사론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언어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이중부정의 예를 들면, Verhagen은 이중부정을 사용할 때 언어의 의미가 중립화되어 긍정문의 의미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부정의 부정어가 형태소부정으로 만들어진 의미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지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 때, 화자는 청자와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인지공간에 청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Verhagen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이중부정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이를 인지공간과 관련한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 (도표7)과 같으며,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정이란 화자가 청자를 부정어 not에 의해 만들어진 두 인지공간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이다.

(도표7)



이러한 설명은 이중부정 뿐만 아니라 인과접속사에도 적용가능하다. 다음의 (예문48)의 경우, 역순 인과접속사 because는 일반적인 사건의 인과관

10) Verhagen Arie, 2005, *Constructions of Intersubjectivity: Discourse, Syntax, Cogn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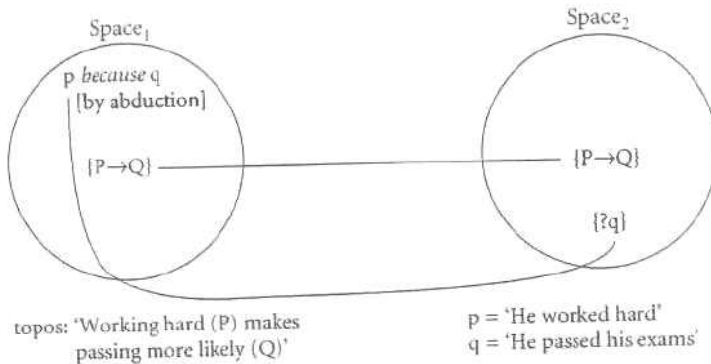
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화자가 자신의 추론(abduction)으로 청자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문48) He worked hard, because he passed his exams.

(그가 시험에 합격했기에,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볼 수 있다.)

Verhagen은 위의 (예문48)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들면서, 영어의 역순 인과접속사 *because*가 단순히 객관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연결시키는 기능 뿐 아니라 추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8)와 같으며, 여기에는 원래의 인지공간과 추론의 과정을 통한 새로운 인지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도표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어에는 순수하게 실제사건의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because*와 앞의 (예문48)에서와 같이 추론적인 의미를 이끌어내고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을 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because*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어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omdat*와 *want*의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Verhagen은 전자는 실제사건의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네덜란드어에는 추론적 의미로 사용되고 인지협동을 유발하는 인과관계 접속사와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는 인과관계 접속사가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러시아어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인과접속사 *так как*와 *потому что*가 전자는 인과.추론적인 의미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후자는 객관적인 내용의 인과관계의 의미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Sweetser의 연구만으로는 이들의 서로 다른 사용이 어떠한 이유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했지만, Verhagen의 연구를 적용하여 러시아어의 *так как*은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고 *потому что*는 이러한 기능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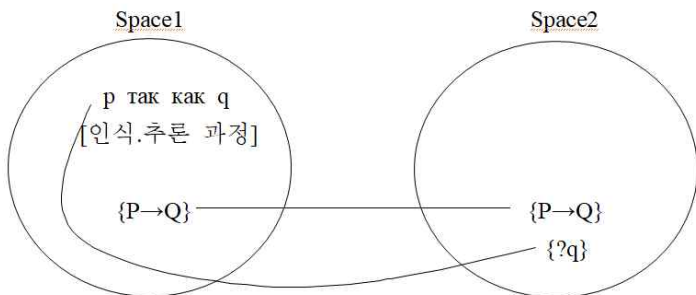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так как*와 *потому что*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을 모두 선별하여, 각각의 접속사가 사용되는 의미와 맥락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접속사 *так как*만이 인과.추론적 의미를 연결시키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예문49) Разумеется, есть выражение чиновника в Пилате и жалость в Христе, так как один олицетворение плотской, другой – духовной жизни.

(빌라도에게는 관리다운 표정이 깃들여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연민의 정이 깃들여 있는 게 당연한 것이리라. 왜냐하면 한쪽은 세속은 세속적인 생활의 권화이고 다른 한쪽은 정신적인 생활의 권화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어의 역순 인과관계 접속사가 형태적으로 *так как*과 *потому что*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다음의 (도표9)에서와 같이 *так как*은 *потому что*와 달리 추론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도표9)



여기에 더하여, 접속사 так как과 потому что가 포함된 문장에 각각 문장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가 종속절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는데¹¹⁾, 그 결과는 다음의 (도표10)과 같았다.

(도표10)

	총 갯수	종속절 문장부정의 수	(%)
так как	37	17	45.9
потому что	109	48	35.7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사 так как는 потому что에 비해서 종속절에 문장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와 연합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문장부정의 부정어는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러시아어의 역순 인과관계 접속

11) Verhagen은 자신의 연구에서 네덜란드어 역순 인과접속사 omdat와 want중 후자인 want가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을 유발하는 접속사라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문자료에서 omdat와 want가 각각 종속절의 문장부정어와 얼마나 연합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omdat와 want로 연결된 59개의 문장들 중에서 종속절의 문장부정어와 연합된 문장의 79%가 접속사 want와 연결되어 있었다. Verhagen은 문장부정은 새로운 인지공간을 만들어내며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을 유발하므로, omdat에 비해 want가 문장부정과 연결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인과접속사 want도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Verhagen의 이러한 방법에 따라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 자료에서 접속사 так как과 потому что가 각각 얼마나 종속절의 문장부정어와 연결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사 так как가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정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러시아어에서 순차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과 역순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사 так как, потому что는 ‘인과관계 연결’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들이 이어주는 인과관계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접속사는 그 쓰임이 선호되고 어떠한 접속사는 사용이 되었을 때 그 문장 자체가 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쓰임의 차이에 대해서 기존의 의미.통사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쓰임이 구분되는 이유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인과접속사들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러시아어의 인과접속사들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 보았다.

먼저, 순차 인과관계 접속사에 관한 연구로는 네덜란드어를 대상으로 한 Henk Pander Maat and Liesbeth Degand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화자가 인과관계에 참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화자 참여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것이 적은 순서부터 인과관계의 여러 유형을 분리한 뒤, 이들 유형에 각각 어느 인과접속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조사해서, 네덜란드어의 세 가지 인과접속사가 화자 참여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러시아어에 적용해본 결과, 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의 순으로 화자참여도가 높은 인과관계 유형에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러시아어의 순차 인과접속사들은, 연결시키는 문장의 화자참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용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순 인과관계 접속사에 관한 연구로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Sweetser의 연구가 있는데, Sweetser는 인과관계의 연결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 접속사 because와 since가 기능적으로는 내용접속, 인식.추

론접속, 화행접속의 다양한 쓰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접속사는 의미적으로가 아닌 화용론적으로 중의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의 주장을 러시아어에 적용시켜보면, 러시아어의 역순 인과접속사 так что는 내용접속과 인지·추론접속의 기능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기에 Sweetser가 제시한 대로 화용론적 중의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의 경우에는 내용접속의 기능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인지·추론접속의 기능으로 사용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데, Sweetser의 연구는 이들의 쓰임이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Verhagen은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영어의 인지·추론적 접속기능을 지닌 역순 인과접속사 because의 의미구조를 인지협동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러시아어의 역순 인과접속사에 적용시키면 접속사 так как은 상호주관적 인지협동과정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고 접속사 потому что는 이러한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전자는 추론적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어의 순차 인과접속사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оэтому, так что, итак은 화자의 참여도에 따라서 그 쓰임이 구분될 수 있고, 역순 인과접속사 так как, потому что는 상호주관적 인지협동을 유발시키는 기능의 유무에 따라 그 쓰임이 구분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Henk Pander Matt and Liesbeth Degand, “Scaling causal relations and connectives in terms of speaker involvement”, *Cognitive Linguistics* 12-3, 2001, pp. 211-245.
2. Horn, Laurence R,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1, 1985, pp. 121-174.
3. Langacker, Roland W.,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1, 1990, pp. 5-38.
4. Russkij Jazyk Kursy, *Russkij Sintaksis*, 1998, pp. 97-101.
5. Sweetser Ev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76-112.
6. Traugott,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sation”, *Stein and Wright(eds.)*, 1995, pp. 31-54.
7. Verhagen Arie, *Constructions of Intersubjectivity: Discourse, Syntax, Cogn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Abstract**A Corpus-Based Study on Russian Causal Conjunction**

Lee, Joo H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pplies the analytical frameworks proposed by Pander & Degand, Sweetser, and Verhagen to investigate Russian causal conjunctions - *po etoy prichine*, *potomu*, *tak kak*, *tak chto*, *itak*. Our goal is to understand the contexts guiding their use and the motivations behind their deployment. The findings reveal a consistent usage order: *po etoy prichine*, *potomu*, *tak chto*, and *itak*, with variations linked to the degree of speaker involvement in the sentence. Furthermore, our analysis highlights the distinctive role of *tak kak* in initiating intersubjective cognitive cooperation processes, setting it apart from *potomu chto*, which lacks this function. As a result, *tak kak* facilitates the connection of inferential causal relationships, a capability not shared by *potomu chto*. This nuanced exploration uncovers distinctions in the use of Russian causal conjunctions - *po etoy prichine*, *potomu*, *tak chto*, *itak* - based on the levels of speaker and listener participation within the speech context.

Key words : Russian Language, Casual Conjunction, Cognitive Cooperation Process, Corpus Analysis

‘추론의 인식 양상어’에서 ‘확신의 담화 표지’로의 확장 :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를 중심으로

정 지 윤*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발언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추론의 인식 양상어’와 ‘확신의 담화 표지’ 개념을 구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발화의 ‘인식적 명제 차원’과 ‘화행(표명) 차원’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확신의 담화표지’는 ‘추론의 인식 양상어’로부터 은유적으로 확장된 개념임을 밝히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현대 언어학의 주요한 경향과 원리인 ‘통합적 연구’를 통해 언어 범주적·의미적으로 은유-확장적 개념인 ‘추론’과 ‘확신’에 관하여 기술할 것이다. 근원이 되는 원형을 토대로 다른 개념들이 확장돼 점차 새로운 뜻과 의미를 넓혀가고, 끊임없이 범주를 확장해나가는 방사형 구조를 지니는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넓은 구조적 가능성에서 ‘추론’과 ‘확신’의 양상어가 보이는 언어 현상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기존의 양상 연구는 ‘가능과 필연’의 세계를 주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믿음(신뢰성; 확신; commitment)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양상 연구가 ‘믿음 세계’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양상의 정의, 즉,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더욱 근접하게 다가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인식양상, 추론의 인식 양상어, 확신의 담화 표지
에서 확신으로의 확장, 믿음, 가능과 필연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과정, jiyeon1936@naver.com

I. 서론

인간은 증거를 기반으로 명제의 진리성을 판단한다. 그 증거는 보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Oswalt(1986)는 명제의 사실적 지위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명시하는 문법 체계(증거 양상)가 비교적 잘 발달된 Kashaya 언어와 Tuyuca 언어를 통해 직접성(보다 확실하고 강한 증거)을 기준으로 증거의 위계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순서는 언어 보편적임을 언급하였다.¹⁾

카샤야어:

수행(Performative)>단언(Declarative)>시각(Visual)>청각(Auditory)>증거(주로, 시각적)에 기반한 추론적 지식(Deductive)> 보고된 사실(Reported)

투유카어:

시각(Visual)>비시각(Non-visual, 가령, 청각)>증거에 기반한 추론적 지식(Deductive)>보고된 사실(Reported)>일반적 지식(Assumptive)

그라이스가 제시한 대화의 격률(maxim)은 명제적 정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대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과 관련된다. 이 중 질(quality)의 격률인 ‘당신의 기여가 진실된 것이 되게 하라: (1) 당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2) 당신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라.’에 따르면, 화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증거에 근거한 정보를 진실로써 표명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증거에 기반한 추론적 지식(Deductive), 보고된 사실(Reported), 일반적 지식(Assumptive) 더 나아가 화자의 의견, 가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경우, 화자는 완전한 인식적 근거(epistemic warrant)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화자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

1) 영어에서는 증거의 개념이 동사들을 통해 표현되는 반면, (카샤야어나 투유카어와 같이) 증거법(문법적 증거 체계)이 발달한 언어들의 경우 한 어휘 단위가 여러 (증거적) 의미에 걸쳐 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가령, 한 어휘가 증거를 표현하는 여러 접어(clitics)들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 ‘The boy played soccer’의 의미에 해당하는 Diga ape에서 ape(동사) + -wi(보았다; Visual) / -ti(들었다; Non-visual) / -yi(증거에 기반하여 추론; Deductive) / -yigi(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음; Reported) / -hiyi(합리적 추정; Assumptive))

라 화자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표명을 자신의 불확실성, 주관성으로서 명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라이스의 양(quantity)의 격률에 의하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정보적이어야 하므로, 가령, 화자가 비가 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비가 온다” 라는 명제의 참에 대하여 “나는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비가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의 표명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p가 참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거나 이에 대해 화자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화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p에 대한 증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그라이스의 양과 질의 격률을 통해 화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주관성의 심리적 상태가 반영된 양상어 ‘-고 있을지 모른다’, ‘-어야 하다’, ‘틀림 없이’ 등을 추가함으로써 표명의 진실성을 높이고, 명제가 참임을 단언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²⁾

그러나, 사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믿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양상어들은 추론과 확신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1)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아.

다음의 예시에서는 일견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과 K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실하게 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 증거 혹은 가설을 통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것이 참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참-거짓을 검증해보고 받아들일 지 말지를 결정한다. (1)에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선생님, 아이의 친구로부터 들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잘못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추론/인식**을 거치게 된다(추론의 논리적 힘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 생겼기에 과연 아이가 잘못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는 그러한 믿음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에

2) 라이언스(강범모 옮김) 『의미론 2: 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한국 문화사, 2013), 338-341쪽.

반대되는 새로운 믿음(우리 아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부모에게는 아이가 잘못했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논리적 결론에 대하여 **1차적 믿음**이 생기고, 이러한 결론을 얼마나 확신하고 수용하는냐는 **2차적 믿음**인 것이다. 가령, 부모는 여러 증언들을 통해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것의 사실성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겠더라는 약한 1차적 믿음 혹은 그랬음에 틀림없다는 강한 1차적 믿음을 가지게 된다. 1차적 믿음은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라는 **명제**에 관한 추론이 지니는 힘으로서의 믿음이다.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음이 사실이라는 판단에 대하여 약 50% 정도의 1차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90%의 강한 1차적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적 믿음으로서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즉, 2차적 믿음은 명제가 참일 가능성(개연성)이 있다라는 판단(1차적 믿음)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하여 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표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차적 믿음과 2차적 믿음은 그 정도에 있어서 상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아이가 잘못했음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90%에 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과거에 아이가 과거에 보여준 착한 행실들 혹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1차적 믿음은 90%인데 2차적 믿음은 20%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Davidson(1985)의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간의 정신에는 상반된 혹은 상충하는 믿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순적 믿음들은 1차적 믿음과 2차적 믿음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요점은 사람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나 상반된 믿음들을 분리한 채로 가질 수 있고 때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신의 부분들 사이에 경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그러한 경계가 상충하는 믿음들마다 그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상정한다."³⁾

필자는 인식 양상어를 명제의 사실성(진리치)에 대한 추론/판단, 즉, 1차적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어휘들로 구분해야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표명하는 차원에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정도(2차

3) Davidson, D. "Incoherence and irrationality" (dialectica 39.4, 1985), p.345-354.

적 믿음)를 표현하는 어휘들을 ‘확신의 담화 표지’라고 부르고자 한다.⁴⁾ 그리고 확신의 담화 표지’는 추론(인식)적 차원의 인식 양상어로부터 확장된 개념임을 밝힐 것인데, 이를 위해 의미 범주에서 화용 범주로의 확장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를 기술하기 위하여 의미 범주와 화용 범주의 연속적 확장 및 언어 범주 및 의미 확장을 설명하는 ‘은유(metaphor)’의 개념이 사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의 양상어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러시아어의 추론의 인식 양상어와 확신의 담화 표지

: ‘추론’에서 ‘확신’으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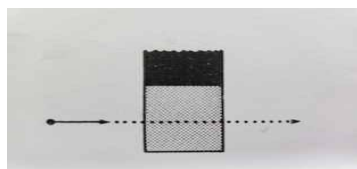
II.1. ‘실재 세계’ -> ‘인식’ -> ‘확행’으로의 은유적 확장

여러 언어 영역에서 인식적 세계는 사회물리적 체계와 유사하다고 처리된다. 즉, 언어 개체는 실재 세계뿐만 아니라 인식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⁵⁾ Sweetser(1990)에 따르면, 뿌리 양상 의미가 인식 영역으로 확

- 4) Palmer(2001)에서도 추론과 확신은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지적한다. 전자는, 화자가 가능한 정보로부터 추론함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의 정도를 가리킨다. 인식적 Must(~임이 틀림없다)의 본질적인 특징이 단순히 certainly, definitely와 같은 화자의 확신이 아니라, 알려진 사실들로부터의 추론 혹은 도출임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는 확신의 표지들은 추론의 표지들에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화자의 발화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추론의 양상 동사에 Halliday(1970)가 ‘조화로운 결합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가됨으로써 변형될 수 있다. ‘조화로운 결합들’은 발화에 대한 화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거나, 그러한 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령, 인식적 양상동사 must에 대하여 surely, certainly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발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화자의 강한 확신을 부가할 수 있는 반면, ‘I think’, ‘I mean’, ‘I suppose’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의 발화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킴으로써, 발화에 대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양상 동사들과 함께, 화자의 책임성(commitment)이 Halliday가 ‘조화로운 결합들’이라고 부르는 것(화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거나, 그것을 줄이는 “완충장치(hedges)”)의 부가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 이들은 문법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5) Sweetser(1990)에 의하면, 가령, 물리적 지각 동사는 인식적 지각으로 확장된다(예를 들어, I see(보다 -> 이해하다). 또한, 추론 과정에서의 인과성은

대되는 정확한 이유는 내적인 심리적 세계가 외적 세계와 유사하다고 은유적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즉, 외적 세계의 언어가 내적인 심리적 세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세계의 힘의 관점에서 심적 힘을 이해한다. 이에 따라 사회 물리적 영역에 적용되는 뿌리 양상 조동사의 의미는 인식 세계로도 확장될 수 있으므로, 그것의 의미 분석은 인식 양상 조동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는 힘과 장벽의 관점에서 양상을 바라보는 Talmy(1981, 1988)의 관점에 착안하여 뿌리 양상 조동사와 인식 양상 조동사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위상적 구조로서의 힘과 장벽이 존재함을 제안한다. 즉, 인식적 양상은 힘 역학 구조면에서 그것과 유사한 대응물인 실제 세계(뿌리) 양상의 은유(metaphor)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그 예로서 영어 조동사 *may*의 의미 분석을 살펴보자. *may*는 잠재적이지만 부재 중인 어떤 장벽의 관점에서 이해되는데,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인한 제약의 결여가 없음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차원에서 *may*는 ‘허락’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편, 추론적 세계에서의 인식적 *may*의 의미는 이용 가능한 전제들에서 *may*가 한정하는 문장 속에 표현된 결론으로 이어지는 화자의 추론 과정을 막을 장벽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뿌리적 의미의 *may*와 인식적 의미의 *may*는 사건 혹은 결론을 막을 수 있는 잠재적 장벽이 없다는 점에서 힘 역학 구조적으로 유사하다.⁶⁾



“(사건의 실현/추론적
결론/대화적 진술을 막을)
장벽이 부재한다”

다음의 예문 (1), (2)는 각각 실제 세계 속의 *may*와 인식 세계에 대응하

사건이나 행동의 인과성의 관점에서 취급되며, 화행 동사와 부사적 요소, 인과 접속사, 등위 접속사, if-then 조건문은 실제 세계뿐만 아니라, 인식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6) 스윗처(박정운, 나익주, 김주식 옮김)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 의미 구조의 은유적·문화적 양상』 (서울 : 박이정, 2006), 104-125쪽.

는 may의 용법을 보여준다.

- (1) John **may** go. (존은 갈 수 있다.)
“존이 가는 데 (나의 또는 다른 어떤) 권위도 방해하지 않는다.”
- (2) John **may** be there. (존은 그 곳에 있을지 모른다.)
“내가 그가 그 곳에 있다고 결론짓는데 내 전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 (3) He **may** be a university professor, but he sure is dumb.
(그가 대학 교수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둔하다.)
- (4) There **may** be a six-pack in the fridge, but we have work to do.
(냉장고에 6병들이 맥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할 일이 있다.)

한편, 예문 (3)과 (4)는 뿌리/인식 양상적 조동사 may의 용법과는 달라 보인다. (3)과 (4)는 다음으로 의역될 수 있다고 Sweetser(1990)은 제안한다.

- (3') I *do not bar from* our (joint) conversational world the statement that he is a university professor, but...
(나는 우리의 (공동의) 대화 세계로부터 그가 대학교수라는 진술을 막지 않지만, 그러나...)
- (4') I *do not bar from* our conversational world your offer of beer, but...
(나는 우리의 대화 세계로부터 맥주 마시자는 네 제안을 막지 않지만, 그러나...)

예시 (3)과 (4)에 사용된 may는 실재 (내용) 세계 장벽의 부재나 인식적 장벽의 부재가 아니라, 대화 세계 속 장벽의 부재를 표현한다. 즉, 실재 세계 혹은 인식 세계에서 ‘그는 교수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장벽이 부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 세계 틀 안에서 해당 **진술이나 제안**이 잠재적 장벽이 없는 것으로, 즉, 적절하거나 그럴듯하다고 화자가 허락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⁷⁾

2.1.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언어 양상이 실재 세계 영역에서 추론 영역과

7) 스윗처(박정운, 나익주, 김주식 옮김)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 의미 구조의 은유적·문화적 양상』 (서울 : 박이정, 2006), 139-143쪽.

화행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힘과 장벽의 개념이 심적(인지적 추론) 과정과 화행 세계를 조망하는 은유임을 살펴보았다. 양상의 뿌리적(실제적 혹은 물리적) 이해는 확장되어 인식 영역, 화행 영역에까지 대응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러시아어의 양상어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에서는 이러한 확장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II.2. 인식양상어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 : 지각 -> 인식적 추론

인식 양상은 명제의 사실적 지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현한다. 어떠한 사태(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성은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참/거짓 판단(‘가능’과 ‘필연’)을 드러내는 인식 양상어를 통하여 표현된다. 러시아어의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는 이러한 양상을 표현하는 인식 양상어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다’라는 화자의 시각적 인지의 의미를 지니는 어근 ‘ви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우리말로는 ‘아마도’로 해석되지만, 의미적으로 차이를 지닌다. ‘по-видимому’는 어휘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по-’: ~에 의거하여, ‘видимое’ : 보이는 것), 화자가 해당 명제가 사실로서 존재함을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것(지각한 것)에 의거하여 표현함을 알 수 있다. 한편, ‘видимо’는 화자가 어떤 명제의 존재를 자신의 ‘정신적 표상’으로서 인식함을 나타낸다. 전자는 지각된 것을 바탕으로 내린 화자의 결론을 표현한다면, 후자는 화자가 지각함과 동시에 떠올리는 정신적 이미지로서의 인식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와 달리 보다 객관적 현실 세계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는 반면, 후자는 명제의 존재가 화자의 주관적인 표상으로 나타나므로, 명제의 사실적 결론이 지니는 힘이 전자보다 더 약하다. 즉, ‘по-видимому’는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명제가 ‘유일한 결론(사실)’임을 의미하는 필연 양상을 표현한다. 한편, ‘видимо’는 해당 명제가 가능한 사실 중 하나로서 존재함(가능 양상)을 나타낸다. 예시 (3)과 (4)는 모두 화자의 관찰과 인식적 증거(3) : 주머니에서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음, (4): 남아

있는 잔치의 흔적)에 따라 전자는 ‘훔쳐 갔다’ 라는 명제가 사실로서 유일한 결론(필연 양상)임을, ‘후자는 사람들이 방금 막 떠났다’ 라는 명제가 사실로서 가능한 결론 중 하나(가능 양상)임을 표현한다.⁸⁾

- (5) Друг сорвался с места и осмотрел карманы в старой шинели и передней. Там ничего не нашлось. - **По-видимому**, украли, - сказал я задумчиво, - придется в милицию заявлять.

(친구는 자리에서 물리나 오래된 주머니와 앞주머니를 살펴보았다.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 훔쳐갔음이 틀림없어, - 나는 생각에 잠겨 이야기하였다, - 경찰에게 알려야겠어.)

- (6) В вагоне-ресторане было пусто, красиво и чисто. Столики светились белыми крахмальными скатертями, и только один, **видимо** недавно покинутый, хранил следы обильного пиршества.

(객실 레스토랑은 비어 있었고, 예쁘고 깨끗했다. 폴을 먹인 하얀 식탁보가 덮인 탁자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탁자만이 풍성한 잔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방금 막 사람들이 떠난 듯하였다.)

한편, ‘видно’ 는 어휘 의미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동사 ‘видеть (보다)’의 피동형으로서 ‘보이다’ 의 의미), 객관적 대상이 화자의 입장과 관점으로서 관찰됨을 의미한다. 즉, 명제는 화자만의 주관적 세계를 바탕으로 인식된 사실(평가)로 존재한다.⁹⁾ ‘видимо’ 와 비교하였을 때, ‘видно’는 해당 명제에 대한 사실 판단이 근거하는 전제가 ‘화자에게만’ 속함을 의미하므로, 보다 더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뉘앙스를 지닌다. 예문 (5)에서 ‘거기서 제대로 안 먹여줬다’ 라는 명제는 ‘화자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지극히 주관적인 사실이고, 따라서 결론으로서 지니는 힘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 Кислева К. и Пайяр Д. *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пыт контекстного-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М. Метатект, 1998), с.74-75.

9) Кислева К. и Пайяр Д. *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пыт контекстного-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М. Метатект, 1998), с.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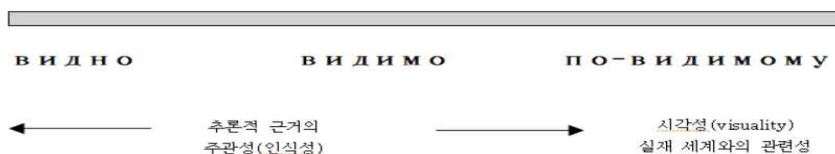
(7) *КОЛЯ*. Пап, я пойду. Хотя ладно, поем. Я есть хочу, вот что, товарищи.

ТАИСИЯ ПЕТРОВНА. Плохо тебя там, **видно**, кормили. Я же столько бутербродов наделяла.

(*콜랴* 아빠, 저 갈게요. 안 먹어도 괜찮은데, 먹을게요. 사실은 배가 고파요, 친구들.

타이시야 페트로브나. **아마도**, 거기서 제대로 안 먹여 줬나 보구나. 내가 샌드위치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분석한 세 가지 인식 양상어들의 결론이 지니는 힘은 지각성(지각성; *visuality*) 혹은 객관성(실재 세계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척도(*scalar*) 상에 다음과 같이 배치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자의 인식적 추론이 현실적(직접적) 시각에 기초하고, 사실 판단의 결론이 지니는 인식적 힘이 더 커진다.)



*по-видимому*는 물론, 객관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지각 및 인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주관성을 띠지만, *видимо*, *видно*와 비교해보았을 때, 보다 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세계와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видимо*, *видно*에 비해 높은 정도의 증거성을 지니며(시각(Visual)>증거에 기반한 추론(Deductive)), 보다 더 시각(지각)에 기초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видимо*, *видно*는 보다 더 인식 양상어적(추론적)이다. 어근 ‘вид-’를 포함한 인식 양상어들 또한 앞서 살펴 본 영어의 *may*와 마찬가지로, 실재 세계에 기초한 시각(지각)적 차원에서 인식 영역으로의 확장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인식적 추론의 근거가 실재 세계(*по-видимому*)에서 더 나아가 보다 더 주관적인 세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에게 떠오르는 정신적 표상으로서의 추론(*видимо*)은 화자만의 주관적인 추론(*видно*)으로 이어진다. 즉, 위에서 제시한 척도를 참고하였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추론이

기초하는 차원이 더 주관적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근 ‘-вид-’를 포함한 인식 양상어들 또한 앞서 살펴 본 영어의 may와 마찬가지로, 추론의 근거가 실제 세계에 기초한 시각(지각)적 차원에서 인식 영역으로의 확장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II.3. 인식 차원-> 화행 차원

II.3.1. 화행 차원과 확신의 담화 표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명제는 화자의 인식을 통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결론을 참이라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발화 행위를 통해 표명(진술)하게 될 것이다. (그라이스의 질의 격률 (1) ; 당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화자는 완전한 인식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불확실한 자신의 (증거에 기반한) 추론, 가설, 의견, 타자의 말을 표명할 때에는 주관적 믿음에 대한 정보를 부가하게 될 것이다. (그라이스의 질의 격률(2) : 당신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라, 양의 격률 :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정보적이어야 한다)

화자는 해당 개체(명제)가 사실로서 존재함을 인식하고(1차적 믿음), 이 사실에 대한 수용적 판단(2차적 믿음)을 하고, 이를 발화(표명)한다. 화자는 알게 된(인식한) 사실을 참(혹은 거짓)으로서 수용한다면 이를 단언(또는 부정)으로 서술할 것이며,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조건적 수용(강한 확신 혹은 약한 확신)을 표현하는 확신의 담화 표지를 부가할 것이다. ‘확신’의 개념은 이미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명하는 데에 있어서 화자가 진술에 대하여 지니는 ‘책임(commitment)’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확신의 담화 표지’는 발화 행위(화행)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인식 양상어로서의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가 화행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확신의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3.2. 확신의 담화 표지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

앞서 2.1. 장에서 영어 양상 조동사 may의 ‘잠재적 장벽의 부재’라는 힘 역학적 구조가 실제적 차원을 넘어 인식적/화행적 차원으로도 은유적으로 확장됨을 보았다. 예시 (2)와 (3)을 다시 살펴보자.

(2) John **may** be there. (존은 그 곳에 있을지 모른다.)

(3) He **may** be a university professor, but he sure is dumb.

(그가 대학 교수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둔하다.)

(2)의 may는 ‘존이 그 곳에 있다’라는 명제가 참일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1차적 믿음)을 드러낸다. 즉, 화자의 인식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한편, (3)의 may는 화자와 청자의 발화 내에서 ‘그가 대학 교수이다’라는 진술을 그럴듯하다고 수용함(2차적 믿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may는 명제의 진리치를 도출하는 의미 범주(화자의 인식 차원)에서 확장되어 청자(혹은 사회)가 포함된 발화(화행)의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러시아어의 по-видимому 또한 may와 마찬가지로 은유의 관점에서 다층적(multi-layer)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식적 세계에서 по-видимому는 ‘객관적 관찰(지각)에 따라 추론해보았을 때, 사태(명제) Z는 참임이 틀림 없다’라는 의미 구조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화행 세계에서도 공유될 수 있다. 화행 차원에서 по-видимому는 ‘명제 Z를 포함하는 진술 p에 대하여 확신한다’라는 의미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인식 차원(가능 세계)에서의 필연의 힘은 화행 차원(믿음 세계)에서 ‘확신’으로 확장된다. 다음의 예시들을 살펴보자.

(8) Решени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Росси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о-видимому, должно быть** связано, во-первых, с замедлением и прекращением процессов дезинтеграции в рамках СНГ и возрождением их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во-вторых, с продолжением налаживания тес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с Западом и с Востоком. [В. П. Максаковский.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картина мира. Книга I. Общ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мира (2003)

(향후 러시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 첫째, CIS 내 해체 과정의 둔화 및 중단과 공동 경제 공간의 부활, 둘째, 서방 및 동방과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의 지속적인 구축과 **틀림없이** 관련되어 있다.)

должно быть(틀림없이)는 ‘향후 러시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첫째, CIS 내 해체 과정의 둔화 및 중단과 공동 경제 공간의 부활, 둘째, 서방 및 동방과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의 지속적인 구축과 틀림없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일 것이라는 판단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по-видимому(아마도)는 должно быть(틀림없이)를 포함하는 가정 사실, 진술(향후 러시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하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음이 틀림없다)에 대한 화자의 확신(신뢰성; 책임)을 표명하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신뢰성은 по-видимому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의 상세한 논거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래의 예시에서 по-видимому는 ‘전파 망원경과 지구의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파괴되었다’라는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 양상어로 사용되고 있다.

(9) Мой разведчик давно уже не выходит на связь.
По-видимому, радиотелескоп разрушен, а возможно уничтожена и вся компьютерная сеть на Земле.
(А.Лазаревич)

(제 첩보부원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전파 망원경이 망가진 것 같고, 지구의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도 파괴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차원의 확장 양상은 видимо에서도 발견된다.

(10) -У неё **наверно видимо** что-то есть.

-Провода.. Это есть какое-т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провода, электричество, нефть, руда.

-Что-то тут такое.

(Корпус диалог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그녀는 **분명 아마**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야.

-전선들... 그건 어떤 시, 전선들, 전선들, 전기, 석유, 광석이야.

-그런 무언가가 여기 있어.)

해당 예문의 ‘**видимо**’가 포함된 문장에서는 신뢰성의 정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두 양상어가 공존하고 있다(**наверно** - 사실성, ‘**видимо**’ - 불확신).¹⁰⁾ 화자는 ‘그녀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명제가 분명히 사실일 것이라는 인식적 판단을 **наверно**를 통해 표현하지만, 그것을 기정사실로서 믿고, 진술하는 화행 차원에 있어서는 불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언가(что-то)’라는 비한정적 어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필시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엇인 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의 존재에 대하여 높은 정도의 확신성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예문 (11)은 확신의 담화 표지로서 ‘**видно**’가 사용된 경우를 보여준다.

(11) **Видно**, не дожидаться мне ег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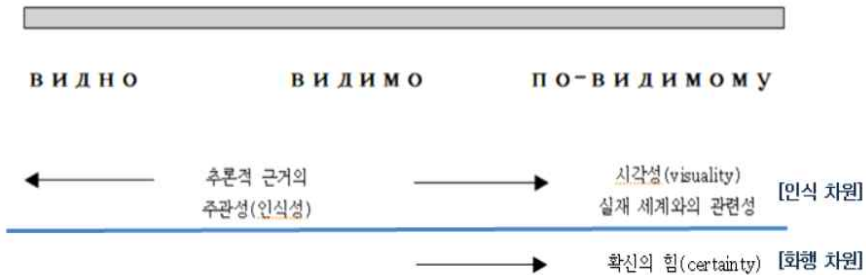
(나는 그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러시아어 보편 대사전(большо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에 따르면, 양상 삽입어로서 사용되는 ‘**видно**’는 발화가 정확한 지식이 아닌 화자의 추정, 인상에 기초함을 의미한다. 화자 스스로가 ‘자신이 그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본인의 의견에 대해 참임을 추론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화자는 이 명제를 온전히 사실로서 인식하지만, 청자에게 표명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다분히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발화해야 하므로 확

10) Кислева К. и Пайар Д. *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пыт контекстного о-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М. Метатекст, 1998), с.78.

신의 담화 표지를 도입하여 발화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확신)을 조절해야 한다. 해당 어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자에게는 공유되지 않는 화자의 고유한 주관적 추정, 견해, 인상 등에 대한 확신의 힘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와 비교했을 때 진술에 대한 화자의 확신 또는 책임(commitment)의 정도는 낮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3.2.장에서의 по-видимому와 видимо, видно의 의미 분석은 인식 세계에서 추론의 힘(필연/가능)이 화행 세계에서 확신의 힘(강한 확신/약한 확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밝혔다.



IV. 결론

본 연구는 화자(서술자)의 논리적 평가를 의미하는 양상어(본 논문에서는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를 다루었다)가 인식적 차원에서는 그것의 의미가 작용하는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추론적 판단을, ‘화행적 차원’에서는 해당 발화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드러냄을 밝혔다. 이러한 양상어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공유되는 의미 구조의 위상을 지니며, 이들의 힘은 인식적 차원에서 화행 차원으로 은유적 확장을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식에서 화행으로의 확장, 즉, 추론에서 확신으로의 의미 확장을 보이는 여러 러시아어 양상어들을 분석해 볼 계획이다. 더불어, 이들을 인식적 차원에서는 ‘가능-필연’의 척도(scalar)로, 화행적 차원에서는 ‘확신(commitment)의 정도’에 따른 척도(scalar)를 통해 분류해볼 것이다. 그

리고 두 차원 중 한 차원에서만 혹은 두 차원 모두에서 나타나는 양상어들을 조사해볼 계획이다. 후자의 경우는 인식적 추론의 영역과 화행(표명)적 확신(commitment)의 영역의 계면(interface)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계면의 존재는 두 차원의 연속성을 함의한다. 더 많은 양상어들을 조사해봄으로써 ‘추론’과 ‘확신’의 범주가 연속적 관계를 지님을 확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다이크(정시호 옮김), 『텍스트학』, 민음사, 1995.
2. 라이언스(강범모 옮김), 『의미론 2: 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한국문화사, 2013.
3. 랭가커(김종도 옮김), 『인지문법의 토대 2』, 도서출판 박이정, 1999.
4. 스윗처(박정운, 나익주, 김주식 옮김),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 의미구조의 은유적·문화적 양상』, 서울 : 박이정, 2006.
5. 정지윤, 『러시아어의 예측적 정언 담화표지에 관한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3.
6. Золотова Г.А. *Очерк 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синтакси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Наука, 1973.
7. Кислева К. и Пайяр Д. *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пыт контекстного-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М. Метатект, 1998.
8. Морковкин В.В., Богачева Г.Ф., Луцкая Н.М. *Большо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АСТ-Пресс, 2019.
9. Davidson D. *Incoherence and irrationality*, *dialectica* 39.4, 1985.
10. Kuroda S.-Y. *The Categorical and the Thetic Judgement: Evidence from Japanese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9, 1972.
11. Lambrecht K.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2. Oswald R.L. *The evidential system of Kashaya*, In Shafe and Nichols, 1986.
11. Palmer, F.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3. Sasse H.J.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1987.
14. Sweetser, 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0.

Abstract

**Expansion from ‘Epistemic Modifiers of Inference’ to
‘Discourse Markers of Commitment’ in Russian : Focusing on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 ‘видно’**

Jung, Ji Yo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the existing studies on the aspects that indicate a speaker's psychological attitude towards an utterance have not been 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s of 'epistemic modality of inference' and 'discourse marker of commitment' because they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e 'epistemic propositional dimension' and the 'speech act dimension' of an utterance, and that 'discourse marker of commitment' is a metaphorical extension of the concept of 'epistemic modality of inference'. This study will describe the linguistic categorical and semantic metaphorical extensions of the concepts 'inference' and 'commitment' through 'integrative research', a major trend and principle of modern linguistics. Considering the radial structure of language, in which other concepts are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underlying archetypes, gradually expanding new meanings and connotations, and constantly expanding categories, the linguistic phenomenon of 'inference' and 'commitment' in a wide range of structural possibilities will be analyzed comprehensively and holistically. Existing modal studies are mostly centered on the world of possibility and necessity, and research on the world of belief (reliability; certainty; commitment) is still lacking.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expansion of modality research into the study of the world of belief, and for moving closer to the definition of modality, i.e. the psychological attitude of the speaker.

Key words : Epistemic Modality, Epistemic Modifiers of Inference,
Discourse Markers of Commitment, Expansion from
‘Inference’ to ‘Commitment’, Belief, Possibility and Necessity